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
web.yonsei.ac.kr/ysfem
woolim@yonsei.ac.kr





꽈아앙~

아름다운 봄이에요?

여성주의적으로 학교에서 살기, 지금부터 시작★

21대 총여학생회「일상, 울림」

아름다운 봄이에요?

CONTENTS

03 '자치' 하는 활동은 팬더도 춤추게 합니다

07 팬더야, 재가 나 괴롭혀

10 모르기 자체주지 못했던 모든 것 14 임보실모브먼세이즘 18 연애 정말
20 어머니 우리 모두 이성애자 23 고기 집으로 집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발목을 잡으며

27 팬더가 무찔러주었 '음' 니다

28 내가 노가는 그대로 우주를 만들어 간다면, 당신은 그 곳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그만둘 건가요?
29 우리들의 코로한 O.T를 위하여 31 우리의 새터는 당신의 밤보다 아름답다
33 이런걸해보았어요 – 선배되기하고 34 지난 여름, 남한강 길을 따라 걸었던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
38 사생친화적 인사에 예쁨하기~ 41 이거 참, 이 이선들 쉽지가 않아
44 대동제 장터, 로컬푸드 공동구매로 꽃미워보자! 45 다른 것을 상상해 보기
50 대안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 환경한장활동! 52 네가 연고전이냐? 우린 연고전스런 글브레이크다!
54 학교당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자치활동!

58 아름다운 봄이에요









'학생자치활동' 이 뭐야?

흔히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연 듣다가 졸고 밤에는 술 마시고 수강신청 다같이 하고 신입생 수련회(새내기 새로배움터) 2박 3일로 댕기와서 파란색 티 다같이 맞춰서 아카라카 뛰어주고 장터 때 파전 좀 부치다가 학관에서 점심도 같이 먹고 술 많이많이 마시고서 서로 부끄러운 모습 보면서 마음을 열다가 너무 활짝 연 나머지 연고계 가서 즘생이 되는 것. 그걸 우리는 그냥 대학 생활이라고 부르죠. 그게 대학 생활의 전부인 줄 아는 때도 있어서 거기서 이탈할까봐, 아웃사이더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게 대학생활의 묘미라고 믿고 푹 빠져 살기도 하고, 그게 찬란한 대학 생활이었다며 아련한 추억에 빠지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는 그걸 대학 생활이라고 불러요.

그거 정확한 명칭이 '학생자치활동' 이예요. 말 그대로 학생들끼리 알아서 하는 활동. 학교에서 간섭하는 거 아니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거 아니고 이사회에서 시키는 거 아니고 학생들끼리 만드는 활동. 근데 한자어로 써 놓으면 왜 어려워보이나 몰라.

'자치' 하는 활동은 팬더도 춤추게 합니다❶

❶ 사실 팬더가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팬더를 좋아해서 넣었습니다. 실제로 팬더는 춤추기는 개뿔, 그냥 굴러다닙니다. 응앵이를 질질 끌고다녀서 흙이 막 얼루기얼루기. 아아아 좋아 엇저 귀여워 팬더야 사랑해_♥

묻고 시작합시다. '자치' 활동 하고 있나요? 그 문화, 그 활동들 만들어서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만든다는 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지금 하는 활동이나 지금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불만이 있지는 않은지,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서로 말하고, 상호간에 협의가 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냥 인기투표로 뽑아놓은 대표자한테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두고, 그저 나도 그랬고 우리 선배도 그랬던 것만 같은● '우리 공동체니까 당연한' 것들을 작년에도 올해도 무작정 베끼고 있다면, 그거 주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 참 뭐하죠.

자치활동을 하는 여기는 '공동체'

여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술 먹고 죽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뭘까, 사람들이 더 만족하고 더 즐기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야겠죠. 우리가 민주적으로다가 결정하자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하고, 뭘 하기 싫어하며, 어떤 걸 하자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지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좋건 말건 기호가 있건 없건 타협이고 뭐고, 지금 공동체들 분위기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모 단대 A군,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여 선배들이 폭력적인 분위기에 술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도 서슴치 않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만, 졸업하고도 계속 마주칠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그는 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 단대 B양, 새터 때 친구가 겪은 성폭력 사건을 반에서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당한 애도 가만히 있는데 혼자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그녀가 특별하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C군, 응원은 재미없고 FM은 군대 생각이 나서 짜증나는데 자꾸 시키니 반 사람들 눈치보여서 억지로 하곤 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군대문화에 반대하여 FM은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대런, 한 개도 안 즐겁다... 열거하자니 참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털이 빠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입이 막힌 사람들'이 있고, 그/너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그렇게 누군가의 입을 막는 권위와 권력을 공동체 안에서 용인하고 수긍하며 동조하고도 심지어 복종하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한 것이 더더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겁자고 해야지요, 그게 형식의 권위건, 사람의 권력이건, 누군가● 억지로 끌려다녀야만 한다면 나쁘다고 말하고, 재미없는 걸 강요받아야만 한다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야지요.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에 휘둘리는 데 익숙해졌다고, 그게 '당연'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고, 지나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꼼수부리지 말고, 문제가 딱 보이면 문제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제기에 귀기울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요. 그러려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권위의 이면을 봐야하고, 그럴땀 머리를 싸야지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랑 나랑 우리들이 재미나게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기에, '학생자치활동'이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문화를 만드는 것, 규율을 만드는 것은 '학생자치'가 아니라 학교와 선생들 재량으로 하고, 그들의 권위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민이 다 뭐냐, 그냥 따라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게 모다? 여/성/주/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권력이 작용하냐 안 작용하냐, 그 불평등과 지배-피지배관계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냐 아니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싫은 여성주의 맞습니다●. 평등이고 권력관계고 해서 계층이나 계급이나 사회나 국가나 뭐 이런 크다란 개념들 생각하시는데, 사회가 구성되는 원리는 우리네 사람 사는 일들 또한 지배하고 있으니 동떨어진 생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받는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 불평등한 대우를 해도 큰 사건사고 없이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맞물립니다. 우리가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건, 개개인 개성과 상관없이 남성에게는 너는 남성적이어라, 여성에게는 너는 여성적이어라 강요해도 된다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하는 일●이 여성이 하는 일● 보다 더 좋고 훌륭한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실질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당연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성에게 잘 지배당하는 여성이 좋고 훌륭한 여성이라는 별 개차반같은 생각이 잘 실천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명한 말로 표현하자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자는 이야기, 여성주의가 학생자치활동에서 수리슬슬 잘 풀려야만 하겠죠. 내가 반 애들을 만나고, 동아리방에서 뭉개고, 과 사람들이랑 회의하는 그런 매일매일 생활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이성애중심성이나 가부장성 같은 권력관계 때문에 곤란해지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분위기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술자리로만 이어지는 반활동이라면 여차하면 스킨십해대는 선배들 있지,

● 잠시 학교 8년 다니고 졸업한 친구 이야기. 애들이 '우리 단대는 원래 이렇게 해요'라고 말했던 것들이 재언해 '원래'(2년 전 대비, 혹은 4년 전, 혹은 6년 전, 혹은 8년 전!!!) 그렇지 않다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크흠

● 그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참 할 말이 없다. 건강검진을 권합니다.

● 보통은 나이 어린 사람들, 학번이 낮은 사람들, 과/반/동아리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여성들), 주류문화에 편입하지 못한 사람들, 기타등등

● 어떤 사람은 모든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평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 육체 노동, 이성적인 것, 공적 영역

● 가사 노동, 감성적인 것, 사적 영역

여자애는 조신해야 된다는 엄마아빠 정책에 따라 통금 있지, 여학생들이 활동을 하기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남성 연대가 아주 공고한 분위기라면 끼리끼리 모여서 누가 이쁘니 누가 살 빠졌니 그런 이야기하는 못되먹은 버릇 발산되고, 거기 못 끼면 또 남성 연대에서 탈락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배제되는 모양이 막 보이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1인 1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의했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이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학번이 높거나 낮거나 여성이건 남성이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비이성애자건 이성애자건,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면 평등하게 말하고 서로 동등하게 대할 여건이 되어야하니, 지금 잘 안 보이는 걸 고민해서 '투표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고, '애초에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야한다는 거죠. 어머나 아름다와라.

좋다좋아 얼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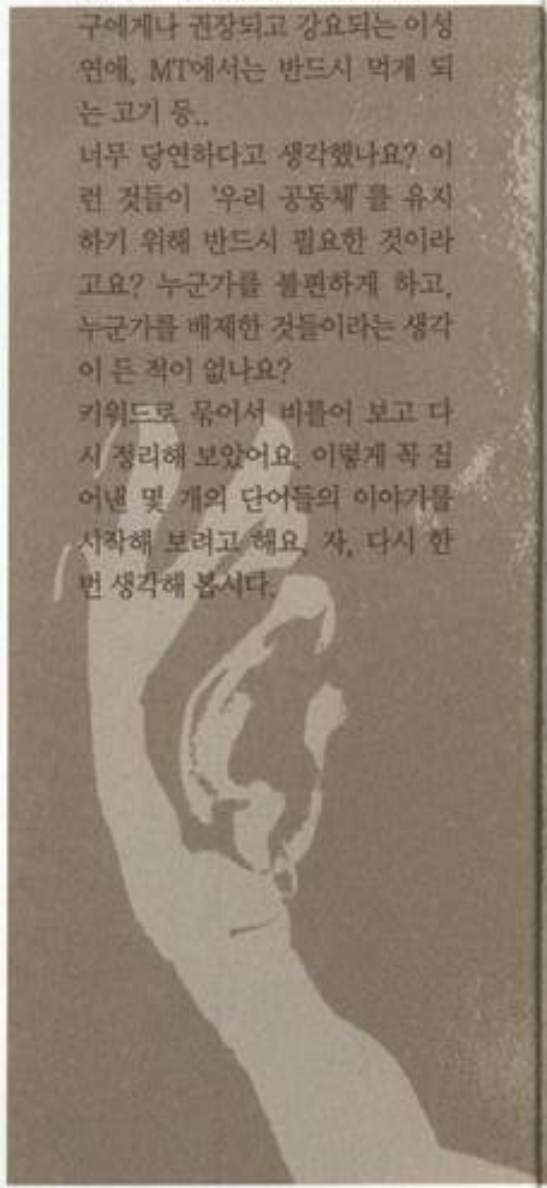
역시 '자치활동'이 여성주의적으로 쑥쑥 자라나니 좋은가봅니다. 서로를 타자화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공동체들이 여기저기서 꿈지락꿈지락 활동들을 아주 그냥 대안적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어느샌가 아카라카는 학교가 기업인지 기업이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백양로에 한가득 대기업들이 만든 고급 피라시가 넘쳐나고, 학생 축제인지 연예인 공연인지 모를 정도로 연예인에만 모든 관심이 쏠리는 축제가 되어버렸죠. 그게 싫은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대로 '얘들 데려가야 하니까' 소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자리에서, 자기들 말로는 아카라카 간 것보다 더 깨춤이 절로 나게 놀아제끼기도 했답니다. 학교를 응원하고 나는 피멍드는 자리 연고제. 그 멍까지 파랗게 들 것 같은 학벌주의가 무서워 생전 연고제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대학 입학 후 파란 티 한 번 안 입어 본 마음 맞는 사람들 모아다가, 우리가 만드는 축제는 더 멋질 거라며 학교 한 복판에 전시물 만들어다놓고, 평소에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싶던 말들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답니다.

그 고민들에서 나온 실천들이, 그걸 좋다고 하고 있는 모양새가 재밌고 신이 나서 책에도 담았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체에서 하는 활동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서 분위기 조금씩 바꾸느라 애쓰는 사람들, 마초랑 처싸우느라 늙는 언니들, 저 짜증나는 선배만 졸업하면 내가 흥냥흥히향하는 앙심품고 열심히 버티는 사람들, 공동체 문화에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챙기느라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고생이 많아요. 다만 그 안에서 지치고 힘들고 활동하기 싫을 때에 사람과 공간과 활동을 그냥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고민을 풀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 상상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 알죠?

글 · 미자



학내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마주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지요. 연세연세 외쳐대는 목소리, 만난 첫날부터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수군거림, 너무 당연하게 누구에게나 권장되고 강요되는 이성연애, MT에서는 반드시 먹게 되는 고기 등..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배제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나요?
키워드로 묶어서 비틀어 보고 다시 정리해 보았어요. 이렇게 꼭 집어낸 몇 개의 단어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파란티

: 파란색을 싫어하든 말든 아카라카나 연고전에서는 입어야만 하는 것. 행여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가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수 있다. 왜? 연세대학교의 상징은 파란색이고(누구 맘대로?), 연세는 하나라는 통일성과 단결력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다.(도대체 누구 맘대로? 뭣 때문에?)

➔ **너 왜 파란티 안 입고 빨간티 입었어, 니가 고대니?**

FM

: "안녕하십니까! 통일연세!!!"로 시작하는 자기소개 방식으로, 군대식 소개방식인 Field Manual의 준말. FM은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핏대를 세우며 해야지, 행여나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거나 한 단어라도 규격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나가리'라는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가리당하고 싶지 않으면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며 똑같이 따라해야 한다.

➔ **F~M! FM!! F~M! FM!! F M F M F M F M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낫 둘 셋 넷**

오빠

: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과 성별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결합되어 촘촘한 권력관계의 상부에 위치하는 계급. 그러한 권력을 휘두른 결과로 학생자치활동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의 선봉에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며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든 여동생이라 불리는 나이가 어린 여성을 연애대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한다.

➔ **'오빠 옆에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너 오빠 못 믿니?'**

여자친구

: 남자의 애인을 일컫는 말. 간혹 통제 가능한 대상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생물학적 성이 여성인 '친구'를 칭하기 위해서는 '여자인 친구' 혹은 '애인이 아닌 여자친구' 등의 긴 이름을 써야 한다.

➔ **대학가면 여자친구 생길 줄 알았죠? 안 생겨요.**

비이성애자

: 이성애가 아닌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연세대학교 모 교수의 호모포비아 발언에 의하면 '연대 정도 들어올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는 없다'지만 연세대학교에는 성소수자 동아리가 중앙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다. (컴투게더: http://cometo.zerois.net/)

➔ **비이성애자의 주체적 시각으로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시화하는 레즈비언 문화제**

연애

: 특정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친밀감/애착/애정 등을 기반으로 한 관계맺음. 일대일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 통제관계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동성연애'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이성간 연애를 일컫는다.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귀찮아해도, 불편해해도, 끊임없이 권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 **너네 둘이 연애하니? 왜 안 해? 연애해**

삼겹살

: 육식 문화의 꽃이자, 1차 뒤풀이의 본질. 본래는 죽은 소, 돼지의 몸이지만, 살아있던 동물의 몸으로 생각되지 못하고 인간의 음식으로서, 상품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얼핏 목소리로 '삼겹살!'이라고 외치면, 그것이 본래 살아있는 동물이었다는 것, 그 동물은 생명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인간에 의해 학대, 사육당하다 살해당했다는 모든 과정을 잊을 수 있다.

➔ **오늘 뒤풀이로 삼겹살 먹으러 가재**

편식

: 어떤 특정한 음식만을 가려서 즐겨 먹음. 모든 생명체를 먹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채식주의자들을 힐난할 때 쓰는 단어.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영양학을 진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자신이 먹을 것을 자신이 선택하는 식사법을 평하할 때 사용한다.

➔ **너 고기 안 먹어? 편식하지 마! 골고루 다 먹어야지**

오빠가 지켜주지 못했던 모든 것

어머내! '새내기' 인데다 '여학생' 이기까지한 내가 '반' 의 '기대표(기정)' 이 되었다. 가부장적인 공간의 학번 대표자를 가장 나이어린 여성이 맡게 되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내가 만들어 낸 변화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빠가 늘어났다는 것일테다.



걱정 마, 오빠가 다 해줄게.

나는 '여자' '기대표' 였다. 나는 '기대표' 로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응원을 할 때면 누구보다 우렁차게 선창해야했고, 내미는 술잔은 호탕하게 꺾어마셨고, 음담패설도 재치 있게 받아쳐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능력 있는 '기대표' 가 되는 것 같았고,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것만 같았다. 점점 술이 늘고, '군대는 언제 갈 거야?' 라는 농담을 들을 때 즈음엔 마치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된 것 같아 우쭐했다.

그러나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다시 '여자' 가 되었다. 연고제 경기를 좋은 자리에서 보기 위해 잠실경기장 앞에서 밤샘을 해야 하는 날이었다. 몇몇 남자선배들이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연세잠바와 돗자리를 챙겨 잠실로 가려 했다. 나는 당연한 기분으로 함께 일어섰다. 잠시간의 침묵과 남자선배들 사이의 시선교환이 이어졌다. "이런 일은 오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집에 들어가서 쉬어." 나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남자 선배가 픕,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보통 여자애들은 밤 안 새지 않냐? 왜 나서서 하려고 해? 이상해." 그 순간, 반의 구성원이 아니라 '여자' 가 된 그 순간,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연고제에서 반 사람들 모두가 즐기울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나약한 '여자' 가 아니라 오빠들이었고, 듬직한 오빠들이 모이는 밤샘 자리에 '여자' 가 끼는 것은 흥을 깨는 일이었다.

그 후에도 오빠들은 다 자기가 해주려고 했다. 반의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는 일, 실질적으로 앞에 나서서 행사를 진행하는 일,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일은 항상 오빠들이 몫이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여자 기대표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도 오빠들이요, 반 행사를 평가하는 것도 오빠들이었다. 여자였던 나는 자연스럽게 오빠들이 지휘하는 밑에서 연락을 돌리는 일, 참여자를 체크하는 일, 웹자보를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내 의견은 뭘 잘 모르는 여자애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경험 많고 믿음직한' 오빠들의 의지대로 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라 여겨졌다.

오빠들은 다른 남자아이들을 오빠로 키우려했다. '여자' 는 이

기적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다 취업이다 해서 2학년만 되어도 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자 후배의 어깨에 반 활동이 달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빠들의 술자리에 선택되는 것은 '여자' 기대표인 내가 아니라 '남자' 부기대표인 내 친구였다. 그들이 고깃집, 술자리, 당구장, 플스방을 거쳐 그중 누구의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나면, 어느새 남자들만의 끈끈한 '의리'가 만들어졌다. '의리'는 다만 자취방에서 끝나지 않았다.


yoshitomo_nara

그들만의 공고하고 비밀스런 연대 속에서 반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반 활동의 노하우가 오빠들로부터 남자 후배에게 전해졌다. 당연스럽게 오빠들의 요구가 반의 가장 정당한 목소리로 인정받았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소외감과 무력함에 지쳐갔다.

정말, 오빠들만 재밌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린 무얼 하든 오빠들이 했던 대로 했다. 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들, 해야만 하는 연례행사들은 오빠의 생활에 맞추어졌다. MT에 가서는 당연히 삼겹살 먹고 소주 먹고 다 같이 진탕 취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는 것이 되었고, 새터에 가서는 소리지르며 게임하는 것이 제일 신나는 것으로 되었다. 술 문화에 익숙할 틈이 없었던 여학생들, 고등학교 때까지 조근 조근할 것을 요구받았던 여학생들은 스스로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 MT에서 여학생 공간분리는 다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반 총회가 끝나면 당연히 술자리, 노래방, 피씨방, 플쓰방으로 이어지는 탓풀이에서 밤을 새야만 했다. 왜 여학생에게는 피곤할 때 남들 앞에서 퍼질러 자는 게 조신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받게 되는지, 왜 여학생들에게는 통금이 그리도 강력하게 적용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왜 여학생들은 왜 남자들이랑 멀어지려고만 하는지, 왜 집에 일찍 가려고만 하는지를 따지는 말만이 흘러넘쳤다.

반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무언지도 오빠들이 정했다. 친해지기 위한 게임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농담들은 모두 오빠들의 재미에 맞춰졌다. 술자리 게임의 벌칙에서 리브샷은 빠질 수 없었다. OT 포스트게임에서는 신문지 게임을 시키고는 서로 껴안는 여남에게 휘파람을 불어댔다. 이렇게 오빠들에게만 맞추어진 재미 속에서 여학생은 '여자'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 오빠들과의 연애 가능성이 있을 때야 부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부각되는 것도 언제나 그녀들에 대한 희화화나 성적 대상화 속에서만 가능했다.

여동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반에서 살아남고 싶었던 여학생들이 모여 〈여학생 모임〉을 만들었다. 보호받는 여동생이 아니라, 곁에서 생활하는 친구로서 다시 관계 맺어갈 힘을 내기위한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오빠들에 가리워졌던 수다를 맘껏 드러내고, 술과 게임 말고도 무수한 놀이들로 관계 맺을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팥빙수를 먹으며 가졌던 첫 모임에서 우리는 "이 모임이 있어서 이제 즐겁게 반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까르르 웃었더랬다.

"왜 여학생끼리만 모이려고 해? 수상해."

"너희는 왜 맨날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니!"

"반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모임을 우리 반 소모임으로 인정할 수 없어."

등등 열거하기에도 버거운 무수한 비방과 인신공격 속에서 우리의 모임은 첫 만남을 끝으로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반에서 장려되는 소모임이 있었으니, 그것은 축구 모임, 농구 모임, 스타크래프트 모임, 당구 모임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규교육과정을 밟아온 여학생들은 축구와 농구로 놀이하기에 익숙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온 무수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밤새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 동네사람들의 무거운 소문과 비난을 견뎌야만 했다. 그럼에도 오빠들은 그곳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라 했다. 여학생의 모든 역사와 모든 맥락이 삭제된 관계 맺기가 '모두가 즐거운' 것으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오빠들은 그랬더랬다. '이기적인' 여자 동기들의 빈자리를 오빠들이 채우겠노라고, 오빠들의 스펙도 취직도 희생하면서, 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었다. 오빠들은 그랬더랬다. 여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도맡겠노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며 찡긋 윙크를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빠들이 '지켜' 주려했던 여학생들은 사라져갔다. 여학생들은 끝내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오빠들이 만들어 놓은 반 활동의 규격이 너무나 비좁고 또 너무나 가혹했던 까닭이다. 이 반짝거리는 여학생들은 차마 오빠들의 구도-명예남성 아니면 연애대상이라는 한정된 구도- 안에 자신을 구겨 넣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차라리 침묵한 채로 사라지는 편을 택했다.

오빠들의 방식으로는 여학생을 지킬 수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은 먹힐 턱이 없다. 그럼에도 그놈의 나이와 성별을 들먹이며 오빠라고 부르길 강요할 거라면, 이제 정말 "오빠는 필요 없다."

글 · 다란

파란 티 입고 응원을 하고 연세를 외치고 고대를 까고
등록금 올라 상관없어 막 외쳐
연세를 막 외쳐 외치면 하나돼

나를 보는 시선들을 느껴
FM하기 싫을 뿐인데
피하려고 애를 써도 느껴지는 이놈의 연세이즘
They make it yonseism yonseism
넌 이제 빠져 버렸어
I'm gonna be crazy now
난 정말 벗어나고 싶어

암쏘싴오브 연세이즘

고백 하나 하겠다. 내가 연세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열렬한 연세대학교의 팬이었다는, 지금은 자다가도 하이킥 하고 싶은 사실을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농구대잔치에서 인대와 고대가 붙을 때면 언제나 연대를 열렬히 응원했고, 연세우유를 일부러 사먹었고, 가고 싶은 학교 1순위는 언제나 연대였던 나. 아직도 생각난다. 부려 공중파 연예 프로에서 아카라카를 중계해줬을 때, 노천극장을 가득 메운 파란 티의 물결을 보며 내가 그 무리 중 하나가 되길 얼마나 소원했던가. 그래, 그땐 그랬었다.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던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만 보였다. 새터에 가기 전까진 말이다. 새터에서 자기소개가 시작된 순간, 기대와 설렘으로 차있던 마음은 순식간에 잿빛이 됐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세!!!!!!"로 시작하는 우렁찬 FM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했을 때, 어찌다 OT를 안가서 FM이 뭔지도 몰랐던 나는 그저 당황하며 남들을 어설프게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보기 좋게 나가리를 당했다. 간신히 FM을 끝내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난생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소개를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창피를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연세대학교 응원단 풍물패

난생 처음 접하는 응원 역시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다. "아라치 아라쵸~~"로 시작하는 기괴한 문장을 모두 한 목소리로 따라하는 모습이라니. 신나는 음악에 맞춰 응원한다는 게 즐겁기도 했지만 몸치인 내가 응원동작을 따라하는 건 쉽지 않았고, 어깨를 걸고 소리 높여 '고.밟.꿈.'을 부르는 거친 응원방식이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과는 다르게 응원을 멋들어지게 해내는 BK라면 선배가 부러웠고, 신나게 응원을 즐기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나 말고는 모두 너무 멋지게 그 자리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FM과 응원 그리고 술자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새터를 도무지 즐길 수 없었고, 내가 뭣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고 외로워서 남몰래 화장실에서 울었다. 그 어떤 공간보다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던 대학에서 나는 내 소개조차 정해진 규율에 맞춰 해내야 했고, 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했다. 그 속에서 '나'라는 개인은 삭제되었고, '연세대 XX대 X반 소속 새내기'라는 뭉뚱그려진 집단만 남았다. 새터는 공동체 구성원끼리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소속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FM과 응원은 끊임없이 내 소속과 '연세인'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정작 새터가 끝난 후 내게 남은 건 연세대와 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아니었다. 내게 남은 건 어설픈 FM과 응원동작, 반 아이들의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인사가 가득한 몰링페이퍼, 그리고 대학이 이런 곳이었나 하는 회의뿐이었다.

끔찍했던 새터의 추억은 오래도록 나를 지배했고, 아카라카와 연고전을 거치면서 나는 내가 그토록 동경했었던 파란 티의 물결도 사실은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 내가 모두가 똑같은 파란색의 티를 입고 똑같은 동작으로 응원을 하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연세'를 드러내는 것에 질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연고전 합동응원 OT에서 일어났다. 연세대 응원단원이 나와서 달걀을 깨뜨리면서 "민족의 알이야(아리아)!"를 외치며 고대를 깠을 때, 나는 정말 실소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유아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행동이 마치 재기발랄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용인된다는 게 놀라웠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한국사회의 학벌지형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았던들, '우리의 우월함'을 이토록 유치하고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고작 수능점수 몇 점 차이로 대학들을 줄 세워놓은 것뿐인데, 그 줄의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연세대학교가 갖는 자부심의 원천이 된다. 다른 학교에서 왜 연고전을 부러워하는지, 왜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연고전을 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는지 생각해보라. 그게 그냥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고 응원하는 게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면 연고전이 나는 학벌자본을 가지고 있소, 라고 과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가? 연고전을 치르고 응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 간에 친선 경기를 하고 경기에 뛰는 선수들

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고전과 응원은 학벌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데서 나오는 그 알량한 자부심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응원의 위력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응원은 학벌주의에 근거한 자부심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학교에 만족하게끔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나는 그것을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어안이벙벙해있던 어느 봄날에 절절히 깨달았다. 매년 그렇듯 학생들의 심의와 논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멋대로 등록금을 올린 학교에 항의하고 다양한 교육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육투쟁이 진행됐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아카라카와 연고전을 할 때만큼 뜨겁지 않았다. 아카라카를 할 때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 밤새워가며 줄을 서던 그 많은 학생들이 본관 점거할 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학생 대표들이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만이 전전긍긍하다 교육투쟁이 끝나버렸다. 빨간 교육투쟁 대오와 정문까지 늘어선 아카라카 입장줄이 대비되면서 나는 문득 서글퍼졌다. 등록금이 올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한 학생도 있겠지만 아닌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 학생들은 학교에 항의도 안하고 왜 가만히 있는 건지, 정답은 곧 알게 됐다. 등록금책정위원회 위원이 했다던 그 말이 정답이었다. '등록금 내기도 벅찰만큼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장학금 받으면서 지방대 다니지 뭐하러 연세대에 왔냐'는 그 말. 학생들은 학벌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록금이 비싸든, 장학금을 받기 어렵든 '명문' 연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건 말 그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명문' 연세대는 학생들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고, 그가 가진 학벌자본을 이용해 학교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을 끊임없이 높여 제시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남는 장사를 하는 데 급급하다. 내가 속한 대학이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벌주의를 내세워 장사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건 전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응원은 오로지 학벌주의를 원천으로 하는 자부심을 온몸으로 외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등록금이 오르든 말든 학내 의사결정구조가 비민주적으로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이) 무비판적으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내면화하게 만든다. 매년 성황리에 치러지는 아카라카나 연고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길들이기 방식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응원과 FM은 같은 구호와 같은 동작 속에서 '연세는 하나', '연세인'과 같은 전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학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학내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지워버린다. 응원이나 FM을 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학생들이 학내의 각종 행사에서 배제되어도,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송도캠퍼스 이전이나 등록금 인상 같은 사안을 비민주적으로 결정해도, 공동체의 결속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과/반 공동체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동체를 떠나는 상황이 생겨도, 학교당국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도, '연세는 하나'라는 구호는 지속됐다. 그러나 정말 연세가 하나라면 위에서 열거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설령 연세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해도 연세인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연세대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소속'이라는 학벌자본을 획득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 비장애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된 이상, '연세는 하나'는 부분을 전체로 환원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에 편입되길 거부하는 이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할 뿐이다.

내가 그토록 동경했었던 파란 티셔츠의 물결은 결국 '학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연세인'이라는 집단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였다. 그 속에서 학벌, 성별, 계급 등에 기초해 형성된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하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었고, 존재할 필요도 없었다. FM이나 응원 모두가 자랑스러운 연세의 일원이 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당시의 내가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는 애써 그 불만을 삼키고 그 자리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싸'가 되어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뿐이었다. 나는 결국 '아싸'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또 다른 선택지의 가능성을 상상해보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FM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개를 한다든지, '연세' 대신 내 이름을 응원한다든지 하얀티를 입고 파란 물결 속에 뛰어들어 총총이 홀로 빛을 발한다든지 연세인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응원 가사를 '진짜 재기발랄하게' 개사하고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응원동작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말이다. 가끔 아카라카, 연고전이 열리는 날에 학내를 돌아다니다 파란 물결의 하나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 이렇게 말을 걸고 싶어진다. 당신도 언젠가 오늘을 떠올리면서 자다가 하이킥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근데 이왕 하이킥 하려거든 허공에 대고 하지 말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놈의 학벌주의, 전체주의에 하이킥 해 보자고. 그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여기에 하이킥을 날리다보면 연세이즘에 찌들거나 아싸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 속 좁은 선택지도 넘어지겠지. 그럴 거다.

글 · 달리

● 물론 연세에 대한 자부심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단순히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고, 흥겨운 분위기가 좋아서 응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동작에 맞춰 응원을 할 때,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는 전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즐거움보다 우선시된다. 노래나 응원동작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에 상관없이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이 갖는 가치에 공감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다.

이 성 애 중심주의의 한복판에서 01

이건 내가 버스에서 다리를 문대는 아저씨가 일부러 그러는건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리고 남자 선배에게 오빠라고 애교있게 불러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선택해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리고 술먹은 채 과도하게 칭찬을 하는 것이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받아들이던 시절의 이야기이며, 내가 반활동에 적응하려고 하는 새내기였던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다.

연애정글



나는 반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내 생각을 공유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그들에 대한 정보는 친해질수록, 은밀해질수록, 언제나 연애(이성연애)관계가 어떻게 얽히고설켰나하는 가십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서로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누가 어떻게 사귀었고, 왜 깨졌는지, 어떤 일을 통해 서로 마음이 상했고, 그 일에는 누가 또 연결이 되는지 파악하면 내가 알고 싶은 저 사람들이 당시 짓고 있는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았고, 내비치는 기분을 눈치 채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대화를 거듭하고 거듭해도 이야기 속 사람들이나, 같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알게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이야기 속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다. 가십은 일방적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또다시 떠들게할 뿐, 서로를 알게 되고 소통하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반 사람들의 관계를 점차 알게 되면서 가십은 그 무시무시한 실체를 드러냈다. 시원스럽고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보이는 여자 선배가 있었다. 한 무리의 남자 선배들이 이상하게 그녀를 껄끄러워했는데, 그들은 새내기들을 데리고 다니며 반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소위 주류집단이었다. 그녀가 그 무리 중 한 명과 예전에 연애를 했었고, 그들 연애관계의 일부인 성적인 관계에 대한 소문이 이미 반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 사건을 나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해준 다른 선배는, '그 여자애가 좀 그런 애야'라며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들어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충고를 해주었다. 항상 술자리에 끝까지 자리하던 상대방 남자와 달리 그녀만 마치 격리조치라도 된 것처럼 구는 것이 부당해보이기도 했고, 호감형인 그녀와 더 많이 말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없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있지만 반 사람들과 있는 것이 어딘지 불편해보이는, 뒷풀이 자리에 가끔 나타나는 여자 선배도 있었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반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적어 반갑게 인사만 할 뿐이었다. 각종 반과 학회 MT에 꼬박꼬박 나와 분위기를 주도하던 고학번 남자 선배와의 연애를 그만둔 직후라서 그녀가 반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은 한참 후에야 알았다. 그렇게 그녀들은 연애이야기로만 떠다니고 있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활동이라는 테두리 안의 사람들은 점차 연애이야기, 혹은 유사연애이야기, 연애전초전 이야기, 연애후폭풍 이야기 등등 연애로만 연결되어있었다. 각자 다른 지향의 활동들과 각자 다른 학업이 이어지면서 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활동은 딱히 없었고, 남말하기 좋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근덕거리는 연애관계 이야기 정도가 반을 관통하는 이슈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그 정글같은 상황에서 연애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막장 액션을 펼쳐도 모두의 관심 속에서 주류로 남아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했다. 반활동에 관심 좀 있다하는 사람들은 그들 커플을 위한 감정노동을 아끼지 않았다. 그 관계 자체가 반활동의 일부로 완벽하게 편입되어 분리될 수 없었고, 반활동이란 것도 그들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 연애들은 수많은 이들의 입방아 대상이었고, 언제든지 욕먹을 것을 감수해야 했다. 심지어 어떤 연애관계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속되기도 했다. 그렇게 연애와 반활동이 얽히는 것은 반의 문화였고, 나 또한 점점 적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한 학년 아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새로 들어온 여학생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이전 해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다.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그녀에 대해 '그런 애들은 뻔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말은 상대방 남성에 대한 동정론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그때 비로소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지난해의 그 가십들의 실체와 근원이 이렇게 대충 끼워 맞춘 사실의 나열일 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난 가십의 주인공들을 재단하고 자근자근 씹고 반에서 몰아냈던 익숙한 색안경을 끼고 새로운 가십의 주인공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난해 그/녀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녀들의 인성이 가십이 말하던 사실과 일치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은 채, 그렇게 또다시 못되어먹은 소일거리가 생긴 것에 사람들은 은근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활동인지 연애활동인지 모를 관계들이 창궐하였다. 연애관계를 반에 '검사받고' 하는 듯한 기이한 행국에, 더 심각한 것은, 연애관계의 혼란이 반 활동에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선배 권력이 폭발하며 후배가 내키지 않아하는 연애가 성사되는 일도 흔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와는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어장관리한다', '문란하다', '저 선배 상처 준 나쁜 년이다'와 같은 폭력적

인 말들을 뒤로 하고, 수많은 여학생들이 상처를 안은 채 사라져가기도 했다.

지금 나는 버스에서 지분거리는 아저씨를 적당히 피할 줄 알고, 오빠라고 애교있게 부르는 것은 연애대상인 여학생에게 오빠들이 주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기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술에 취한 사람의 칭찬이 과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코웃음을 칠 줄도 안다. 그리고 반을 훔쳐 떠나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남의 연애를 두고 죽자사자 입방아를 찧어댄 그 공간이 우습기도 하고, 그 때 내가 더 잘 할 수도 있었을까하는 소용없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지금처럼 '이 사회는 연애관계에서 여성에게는 조신하면서도 섹시할 것, 똑똑하면서도 감정노동에 능할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당신이 들이대는 성에 대한 이중 잣대가 공동체에서 흔히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고 또한 이는 이후의 여성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인 훈육으로 작용한다' 고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심지어 슬짝슬쩍 거기에 동참해서 가십을 듣고 즐기고 옮겼던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녀는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녀는 그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 그때의 나는 이게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다.

글 · 문희

이성애 중심주의의 한복판에서 02

어머나 우리 모두 이성애자



--순덕아, 너 연애 해봤어?
--아니 안 해봤는데.
--어머 넌 남자친구 많았을 것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없었어. ㅋㅋ
--넌 남자에 관심 없어?
--응 별루.

새내기 때, 난 이런 대화를 '왜 이 학교에 들어왔어' 혹은 '어떤 책을 좋아하니' 혹은 '요즘 관심있는 주제는 뭐야' 보다 더 많이 했다.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상대를 보며 나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궁금해하는 연애 이야기. 사실 '연애' 경험이 있으니 이는 어찌보면 거짓말이고 실상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실 대화에 가려진 부분을 표기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순덕아, 너 (이성)연애 해봤어?

www.kozyndan.com



--아니 (이성연애는) 안 해봤는데.
--어머 넌 남자친구(--애인) 많았을 것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없었어. (여자친구--애인은 몇명 있었지만) ㅋㅋ
--넌 남자에 관심 없어?
--응 별루. (여자한테는 약간 있어.....)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심지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대학 들어온 당시 상태는 연애신경은 쓸 겨를도 없이 새로운 곳에 적응하던 와중이었다. 그러니 그 공간에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할 정도의 용기도 지지기반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 생각을 눈꼽만치도 해본 적 없다. 내가 겪은 어떤 공간이건 이성애자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만난 사람들은 동성애에 반대하지 않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내 연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로 고민을 들어주곤 하던 소꿉친구 한명 뿐이었다.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 사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 무거웠는지, 가치관이나 지향점에 대해서는 별로 나누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다른 이야기는 끄집어내기 너무 힘들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뻘쭘한, 그러나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 그렇게들 연애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이고 입가에 침이 고였다. 다들 한 마디씩 하고 싶고 듣고 싶어서 서로를 추궁하곤 했다[1]. 그리고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방글방글 웃고 있거나, 열심히 참견하다가 '너무 잘 안다' 는 문제제기가 불쑥 튀어나와 속으로 땀을 흘리며 둘러대고 있었다. 불편한 줄도 이상한 줄도 잘 몰랐다. 그저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이 나면 별로 유쾌하지 않았고, 그런 생활이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었다.

새내기 티를 벗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마음을 터놓고 대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리고 나는 벽에 부딪히고야 말았다. 그것은 나보다 나이가 세살 많은 남자 선배와 이야기하고 있던 때였다. 그 사람이 진지하게 면담을 요청하여 하는 말인즉슨, 내 친구인 A양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둘 다 좋아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같이 맞장구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하다가, 입밖

❶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드라마에서 연애 이야기만 중구리징창 해대서 그렇다. 왜 의학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학원드라마는 학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 수사드라마는 형사들이 연애하는 드라마, 막장드라마는 막장으로 연애하는 드라마라는 우스개소리도 있지 않나. 입시에 찌든 우리들에게 드라마가 얼마나 강같은 위안이었고 삶의 희망이며 유사 경험이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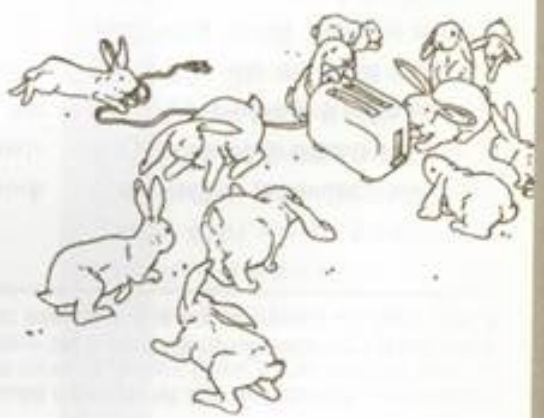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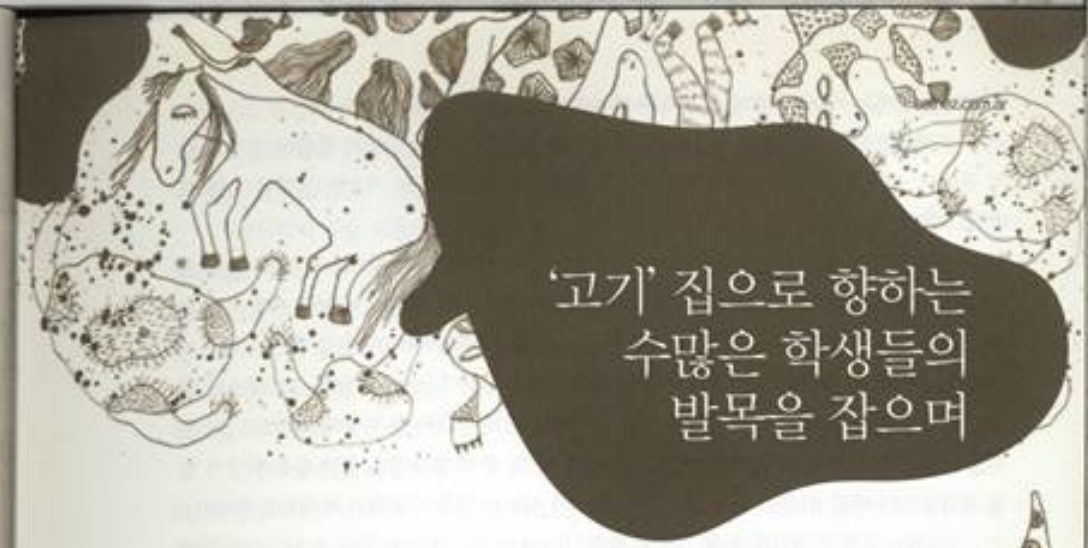
으로 나와버렸다. "나는 B양을 좋아했었는데." 그 선배의 반응은, 처음에는 아 그러냐, 였고, 그 다음에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여자들끼리 친한 것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연애가 아니다), 였고, 그 다음은 진지한 얼굴로 동성애자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살짝 놀랐지만 웃으며 대충 넘어가서 다시 선배의 연애상담으로 이야기를 돌렸다. 그리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내내 생각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 내가 더 어리니까,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쩌면 성별이 다르다고, 여자가 생각하는 연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 섹슈얼리티를 이해 못할 것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걸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나 자기가 이해 못할(이해하지 않을) 어떤 것으로 일단 두고 시작하는 것이 당혹스러웠다. 내가 여자가 좋다고 말하는 순간, 그 선배가 서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소통해야 할 사람의 목록에서 레즈비언인 나는 지워진 것 같았다. 어쩌면 자기 주변에 비이성애자가 있다는 것, 그 비이성애자가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비이성애적인 감정을 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다. 이 사회에서는 이유가 없어도 그냥 그러기도 한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하기를, 그 사람을 인정하기를 그만두었다.

지금 내 친구들은 내 성정체성을 알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과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질어보기도 하는 것은, 그냥 재미있는 대화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긍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나누면서도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찾아낸 행복이다. 그래서 나에게 새 내기를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그 상황에 다시 놓이라고 하면 못 견딜 것 같다. '당연히' 이성애자들만 가득하고, '당연히' 나도 이성애자고, 너도 이성애자고, 따라서 이성애자가 아니라면 구성원이 아닌 그곳. 그 이성애중심주의의 한복판은,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곳이다. 허물없이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나를 만나러라는 상상력을 살짝 발휘할 수만 있는 공간이더라도, 그 정도로도, 숨통이 조금은 트일텐데 말이다.

글 · 순덕





'고기' 집으로 향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발목을 잡으며



고기라고 말하지 말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요.

그 놈의 고기, 고기, 고기. 저는 고기라는 말을 증오합니다. 학교에서 나와 신촌으로 들어서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게 고기집이고, 또 그 속에 빽빽이 모여 있는 건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라는 말을 별다른 꺼림칙함 없이 쓰고 있는 걸 듣고 있자면, 참 무언가를 이름짓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식주의자들은 '고기 먹자' 라고만 말하지, '살해한 동물의 살을 먹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기분나빠하겠지요. 아마 그렇게 느끼는 건, 고기라는 말이 가리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상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기' 라는 말은 그 속의 수많은 관계들을 은폐합니다. 모두 알고 있지만, 떠올리려 하지 않는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 는 본래 동물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닭' 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떠올려지나요. 신촌의 어느 치킨집이 떠오르고, 후라이드, 양념이 떠오른다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기라는 말을 들춰 보면 보일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먹는 '고기' 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동물들이 생명을 가진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인간에 의해 지배당하다 살해당해 음식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마음 편히 '고기' 를 먹을 수 없었어요. 교과과정에서 배웠던 목축업의 형태인 '유목, 방목' 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넓은 농장에서 동물들이 풀을 뜯고, 목욕도 하고, 햇빛도 쬐며 길러진다는 생각은 철저한 환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기의 '수요' 가 많아지자(인간이 동물을 식품으로 사고하고 '생산' 에 힘쓰자) 소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공장식 영농' 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선 인간들이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고기' 를 '생산' 해내기 위해, 동물과 함께

살 고민을 하기는 커녕, 동물의 전 생애를 지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기' 라는 말을 들춰내기 시작하자, 닭, 돼지, 소와 같은 동물들이 공장과 같은 곳에서, 생명체가 아닌 인간의 먹을거리로 태어나서 죽어간다는 가혹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닭은 1평에 50~70마리 혹은 그 이상이 수용되어, 강제로 영양제(라는 이름의 성장 호르몬)가 섞인 사료를 먹게 되고, 30~35일 만에 1.5kg라는 적정 체중으로 살이 찌워져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영양제를 먹으며 큰 닭들은 체중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먹이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지 못해 굶어죽기도 합니다. 이런 닭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닭들을 공격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 달군 날을 이용해 마취도 없이 부리를 자릅니다. 도살장에서는 의식이 있어도 목을 베고, 살아 있는 닭을 끓는 물통에 담가 털을 제거하기도 하고, 인간이 먹지 않는 부위를 다시 사료로 만들어 닭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돼지는 몸을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작은 칸막이 안에서 평생을 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예정된 운명을 부여받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태어나고 죽어가는 돼지들이 처음으로 햇빛을 볼 수 있는 순간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닭과 마찬가지로 돼지들도 영양제가 투여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길러져, 도살장으로 가는 그 순간조차 자신의 다리로 걷지 못합니다.

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젖소의 경우, 젖을 짜기 위해 강제로 임신시킨 후, 출산 즉시 어미와 새끼를 떼어내어, 어미 소는 젖을 착취하고, 송아지는 살을 찌워 소고기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소의 피와 내장과 같이 상품으로 팔지 못한 부분을 소의 사료로 만들어 채식 동물인 소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소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 동물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든 먹이고 살을 찌워 상품으로 만들면 된다는 생각인 거지요. 마찬가지 이유로 소가 걷는 것은 사람이 먹는 '고기' 를 만드는 데는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평생을 걷지 못할 정도로 좁은 우리에서 기르고, 일정 무게가 지나면 도살합니다.

몸이 떨리면서도, 울음이 나면서도, 자세히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라는 이름이 가리고 있는 악업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고기' 를 만들고 먹는 데 담긴 권력 관계

사육 과정에서 인간이 동물에게 자행하는 그 횡포들에 치떨리고 마음이 무겁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지나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인간은 동물의 전 생애를 통제할 수 있고, 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다른 동물의 생명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권력에 대한 의문이고,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팽창시키며 자연스레 자연을 착취하는 인간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동물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권력 관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린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을 성찰하지 못한 채 폭력적인 관계 맺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동물을 사육하고, 도살하고, 먹는 행위 속에 담긴 권력관계를 성찰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을 포함한 자연과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는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평등하게 관계 맺기는 커녕, 관계를 맺는다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개발 가능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환원하여 타자화하고, 상품으로서 더 효율적으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착취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요. 생태계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그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과 관계맺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요.

육식에 담긴 인간과 동물의 권력관계에 대해 생각해봐요. 인간은 공장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동물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든 생애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생활하는 환경, 먹을거리, 자라나는 과정을 포함해, 동물은 그 모든 일생을 인간에 의해 억압당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상품' 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생산'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관계가 가능하고, 또 그것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인간이라는 권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이유로 다른 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권력 때문이고, 그러한 권력은 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뒷풀이의 성지, '고깃집' 에 앉아 성찰하기

모든 성찰은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맺음에 대한 성찰' 이라는 말이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느끼진 않을까 하는 기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봐요. OT 행사가 진행되는 몇 일 간, 신촌의 그 수많은





고깃집들은 모두 예약이 꽉 차서 학생 자치 단위들이 예약을 하지 못해 펄펄뜁니다. 자치 행사를 진행한 후에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면 다 함께 깃발 들고 고깃집으로 향하는 건 너무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술을 마실 때도 안주에 고기가 없으면 허전하지요. 닭 '고기' 돼지 '고기' 소 '고기', 그놈의 고기, 고기, 고기.

예약이 꽉 찼다고 좌절하기에 앞서, '고기' 구우며 웃음꽃 피우기에 앞서, 자신들의 그 행위 속에 담긴 권력관계들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신촌에서 소비하는 고기는 대부분 앞에서 묘사한 그 '공장식 영농'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기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고기'로 생산하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인간의 지배 권력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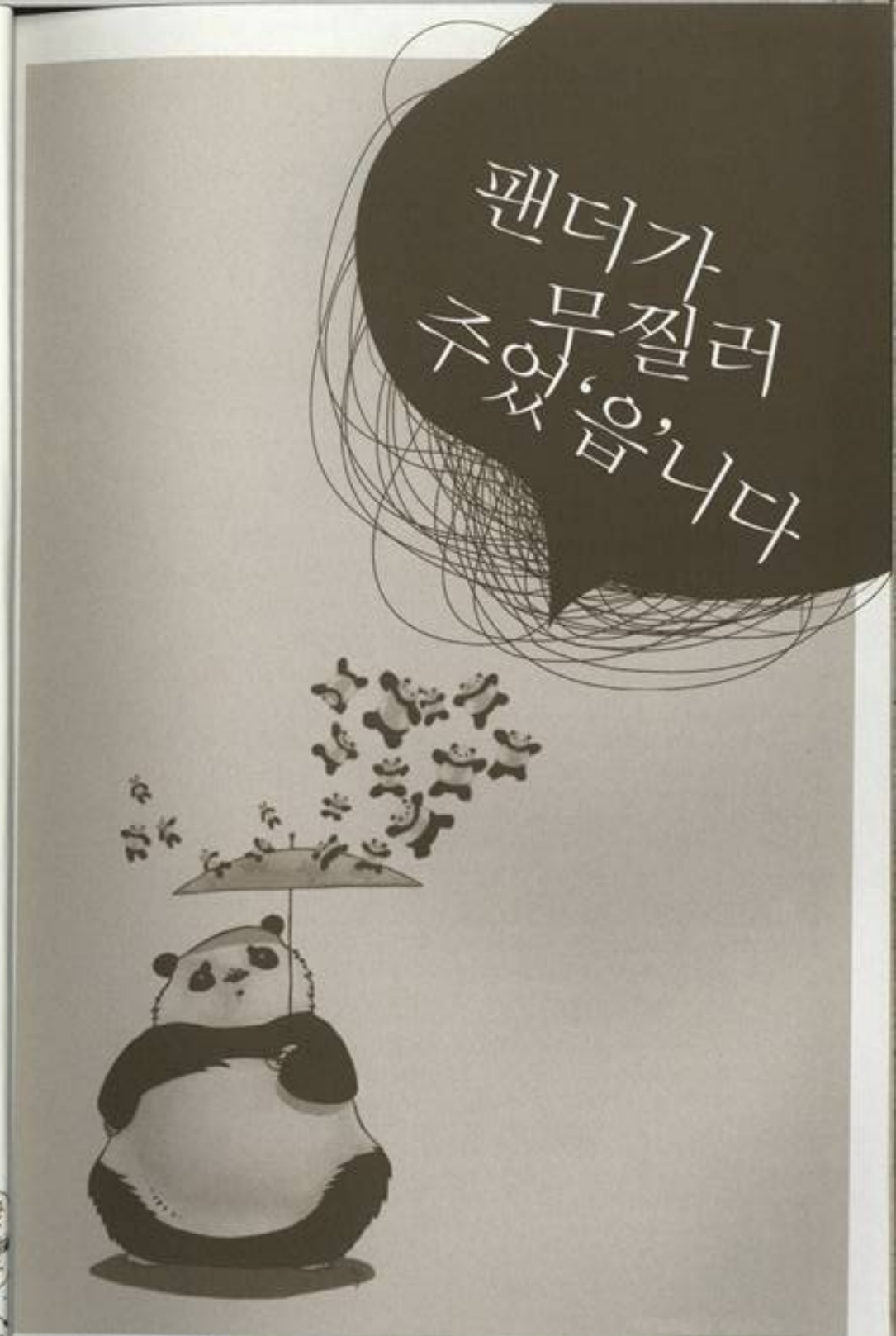
먹는 것도 왜 그리 어렵냐고, 그냥 먹으면 뭐 큰일 나냐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일상은 수많은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촘촘한 관계들로 엮여져 있고, 그 관계들 사이에선 무수히 많은 권력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먹는 행위를 살펴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도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습니다. 커피재배농부는 커피 45잔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커피콩 1파운드를 팔면 480원을 받게 됩니다. 커피 한잔을 10원에 파는 것이지요. 그 외의 모든 이득은 커피회사들이 독점하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전 세계 2000만 명의 농부들은 대부분 빈곤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린이입니다. 초콜렛도 많이들 즐겨먹는데, 초콜렛 속에는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아동들을 '노예'로 만들어 하루 10시간 이상 씩 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은커녕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권력의 횡포가 숨어있지요. 이처럼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먹음으로써 무엇인가와 관계맺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먹는 행위 속에 담긴 권력관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그냥 먹는 것이다.'라고 넘어가기엔, 우리의 '먹는 행위'는 다른 존재를 억압하는, 너무도 뒤틀린 관계맺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먹을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관계 맺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일상이 그 자체로 다른 존재를 억압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시작일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자연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기를 먹으러' 학교를 나서는 수많은 학생들의 발걸음 속에, 그렇게 자연을 억압하고 있는 학내의 문화 속에, 그러한 고민과 노력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라구요^^

글 · 수영







내가 느끼는 그대로 우주를 만들어 간다면,
당신은 그 곳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그만둘 건가요?
(이어림 - 'We are the universe' 중)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의 우주래요.
빅뱅!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러니까 우주와 우주가 만날 때,
아마도 처음 시작은 빅뱅이었을 거예요. 모든 게 우장창창 뒤흔들리는 대폭발!
빅뱅에는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어느 것도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없어요.
무엇을 시작하고 그만둘 건지를 하나하나 결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학생자치활동도,
우주와 우주가 만나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커다란 빅뱅일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래된 방식으로 빅뱅을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가부장적인 방식, 전체주의적인 방식, 이성애중심적인 방식, 인간중심적인 방식,
너무나 오래되고 또 당연하게만 생각되던 무서운 방식, 방식들……
하나의 우주가 다른 하나의 우주를 밟고 올라서거나, 삼켜버리거나,
그리하여 한 우주의 온 생명을 메말라 버스러지게 만들어버리는 방식들……

여기, 끊임없는 소통과 박박한 모험을 통해 빅뱅을 올라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은하계를 고민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를 배제시키는 놀이를 벗어나, 여성주의적으로 만남을 시작해보는 여성주의 OT
술먹자 게임만 하던 세트에서 내가 숨 쉴 수 있었던 촛불대화 시간
누군가는 즐길 수 없었던 아카라카를 조롱하는 차별친화적 연세에 예봉하기
일회용 접시에 삼겹살을 구워먹기보다 지역 재래시장 농산물로 요리해보는 MT
'남학생은 짐 옮기기 여학생은 요리하기'라는 오래된 공식을 깨는 대동제 장터
일상을 여성주의로 바라보는 농활과 평등한 관계맺기를 고민하는 환활
푸른 티셔츠로 물결치는 학벌주의, 전체주의에 제동 거는 연고전스튀긴브레이크
그동안 가려져왔던 이야기를 팡팡 터뜨리는 문화제, 그리고 축제들…!

빅뱅 속에서, 그 혼란스러운 어둠과 치열한 진동 속에서 비로소
빛이 피어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피어나 참점이 맡아져 있던 빛들은 서로를 알아보곤 별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수한 별자리로 이어져선 결국 아름다운 우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쿄쿄한 O.T를 위하여

후훗.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대학의 첫 O.T가 전실로 뻘쭘함과 어색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과연 난 O.T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얻고 무엇을 배웠나, 인간관계는 확장 된 것인가, 아니지, 그 무리들 속에서 과연 '관계'는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1인이다. 더불어 작년 하고도 작년 하고도 작년 추운 겨울, 여성주의 새내기 O.T 기획단을 모집한다는 어여쁜 플랑을 보고, 여성주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색다른 O.T를 준비한다는 것이구나 하고 참여하며 여성주의가 주는 앎에 대한 고통의 희열과 대안적 O.T라는 것이 있단다! 에 대한 일생일대 중 대한 사실을 나만 알게 된 것 같은 즐거움을 만끽하며 쿄쿄 거리기도 한 1인이다.

그때의 그 어여쁜 플랑, 오색찬란한 기억으로 아로새겨진 〈2006 여성주의 새내기 O.T 기획단 모집〉의 플랑에는 성별 불문, 나이 불문, 학번 불문이라고 쓰여 있었다.

너무 명쾌한 그 말에 나는 하마터면 무릎을 꿇을 뻔 했다. 나이주의, 남성우월주의, 학번주의로 점철된 호칭들에서 느꼈던 실로 두터운 성별에 따른 권력과 폭력, 차별이 이 O.T,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통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성별 불문하여 성정체성 존중, 성지향성 존중되어 내가 여자니까 (더 자세히 내 겉모습의 무엇이 그렇게 보이는 연유로 인해) 무조건 남자를 좋아할 지어니 꼭 성사시켜야 하는 여남 짝짓기 연애 대상이 되진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O.T가 끝난 뒤, 남성, 이성애자를 비롯한 권력자, 권력의 중심에 의해 공동체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뭔가 뒤가 살짝 쟁기는 걸리적거림이 아닌 차원이 다른 상쾌함을 느껴볼 수 있단 말인가.

본인의 바램, 이것은 곧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기획하는 이유이기도 했으니,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 다수의 권력적 시각으로 구성된 기존 O.T 판에서의 지루함과 하품, 많이도 하고 듣고 보았던 기획단 일동은 그 지루함에 대한 비판을 〈여성주의 새내기 O.T〉의 대안적 O.T의 기획하는 재미로 풀어내고자 했다. 성/성정체성 불문, 나이불문, 학번 – 불문하여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권력 관계와 그로 인한 차별, 폭력을 제대로 비판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여는 재미를 느껴보고자 했다.

하여 남/여, 선배/후배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난 관계를 모색할 수 있었고, 서로의 존재를 남성우월주의, 이성애중심주의, 나이주의에 따라 규정하지 않았을 때의 재미를 찾아갔다.

〈2007 여성주의 새내기 O.T – 그만 곤란하길 바래〉에서는 먼저 그 오프닝으로 〈여성주의로 관계 열기〉라는 주제를 던졌다. 연애 대상으로는 쉽게 여성을 '취급'하면서도 주체적인 욕망을 가진

여성은 언제나 쉬쉬하기를 바라던 O.T를 벗어나고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연애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다. 또한 대학 내 수많은 공동체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건질 것이 많은 여성주의 공동체에 대해 꼭 이야기하고자 다분히 기획자들의 흐뭇한 의도로 마련된 〈공동체 이야기〉 진행 +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성주의 이슈들을 짚어 = 자신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로 토론을 진행했다.



www.joomdosam.biz

O.T 시작 전까지 관심과 흥미 끄는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해 신청 받는 방식으로 팀별로 이뤄진 프로그램에서는 호흡 곤란할 정도로 격하게 운동해보고, 방치 곤란한 여학생 휴게실 꾸며보고, 나 소외시키지 말고 응원하고, 포름알데히드로부터 벗어나 대안생리대 만들어보며 우리의 월경 수다 무르익어 보고, 남성페미니스트들의 여성주의 수다도 엿보고자 하였다. 막무가내 식의 게임이나 군중속의 외로움 느끼되 배워야한다고 강요되는 응원으로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응원도구를 이용, 신나게 헉헉 거리며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는 것이 더 의미 있으리라 생각하였고, 버스타고 외곽까지 나가 둥그랗게 둘러 앉아 뻥해지는 것보다 앞으로 생활할 대학 캠퍼스 내 여학생의 휴식 공간-여학생 휴게실- 을 문화 나눔의 공간, 벽면 한켠쯤에 자신의 그림, 사진 걸어둘 곳으로 다시 보는 것이 훨 재미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참가자들과 이러한 생각과 의도 공유하였으니, 서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관계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간이 아닌,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관계를 열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지는 〈그만 곤란하길 바래〉의 마지막전.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곤란한 것들!'〉 종이에 가득 쓰고는 하나, 종이 비행기 날리고 둘, 함께 말하고 들어줌으로써 훅훅 날려버리기.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의 폭로로 날아갔었어야 할 "남자친구 있니?" 라며 연애 유행에 별 의사 없는 나 끌어들이기, "여자가 밤늦게까지 다니냐."는 둥, "넌 안 꾸미냐."는 둥의 말들 아직도 여기저기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곤란함 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 다음의 또 다른 기회를 기약하며 여성주의를 통한 재미와 힘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통해 기존 O.T의 곤란함을 끄집어내어 비판하고, 곧 〈O.T〉계를 평정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가 교교거리기 위한 여성주의를 주제로 한 대안적 O.T가 존재함을 알릴 수 있었다.

두둥, 어떤가. 물음표를 나누며 느낌표로 끝날 수 있는 느낌 있는 〈여성주의 새내기 O.T〉. 이런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들 어때 하며 한번쯤 상상하고 함께 나누어보는 것이, 교교!

글 · 우주

우리의 새터는 당신의 밤보다 아름답다

촛불대화의 즐거움을 아직도 못 잊어

O. OT에서 나는 여학생이 다른 이의 '친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조건을 파악해 버렸다. 눈에 띌 만큼 예뻐서 연애대상으로 선망받는 것,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목소리가 크고 호탕한 명예 남성이 되는 것. 이쁘지않았던 나는 새터에 가서는 좀 더 웃기고 활자적인 사람이 되어야했다는 다짐을 했다. 나는 '친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여자'로 보이지 않는 친근함을 연출하기 위해서 과장된 공기에 내 몸을 발겨보려 무진 애를 썼다. 게임을 할 때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남자애들이 하는 야한 농담에 적당히 맞장구쳐보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유쾌함을 연기하기는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친해지기 위해 만들었다는 새터였지만, 우리의 소통은 획일적인 게임과 규격화된 농담 속에서만 가능했다. 대화는 없어지고, 술만 늘어갔다. 그 속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은 여학생이었던 나에게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반선배가 "올해 우리 반 새내기 여자애들 몸이 별로지 않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순위 매길 수 있는 진열대의 상품이었다. 끊임없이 '원샷'을 외쳤다. 생전 먹어본 적이 없는 술을 한 사발씩 비우려니 머리가 핑핑 돌았지만, 그 자리에 싫어고 싶어서 토해내고서라도 다시 술을 마셨다. 게임을 하다가 벌칙으로 '러브샷'을 했다. 처음 보는 남자와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스킨십을 해야만 했던 그 순간, 내 팔에선 소름이 돋았다.

1. 그 기일었던 3일 중 특별한 몇 시간 동안 나는 죽어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건 '촛불대화' 시간이었다. 알고 보니 '촛불 대화'는 술과 게임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 맺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선배들이 만들었다가 그 이후로 죽 내려온 우리 반의 새터 프로그램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터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던 것이다. '촛불 대화'는 보

봉 새터 둘째 날 밤에 시작되어 셋째 날 새벽까지 이어진다. 방법은 간단하다. 각자 하나씩의 촛불을 든다. 선배들이 2, 3명씩 조를 이루고, 신입생들이 5, 6명씩 조를 이루어 각 5개 정도의 조를 만든다. 선배들의 조는 각각 '반 활동', '연애', '공부', '동아리' 등의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 신입생의 한 조와 선배들의 한 조가 만나서 촛불을 놓고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리를 이동하여 새로운 조합으로 다른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 5개 조들이 각각 다른 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촛불 대화는 끝이 난다. 보통은 정해진 주제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촛불의 분위기에 젖어서 밤이 새도록 이어지기도 한다.

촛불이 위나 사람을 친근하게 만드는 신기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대화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먼 미래의 꿈을 선언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막연히 가졌던 대학에 대한 환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논스톱의 그들처럼 활발하게 연애를 하진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처음으로 옆의 친구가 패닉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진 반가워했다. 반 활동의 어려움들, 여자 선배가 없어서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하던 순간에 나는 스리슬쩍 술이나 게임만이 아니라 이렇게 촛불 대화하는 시간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들 끄덕이며 새터에서 불편했던 점을 조금씩 덜어놓았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3일 만에 우리는 비로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술이 없이도, 게임이 없이도 우리에게 대화가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진장의 힘이 되었다. 연애 대상 아니면 명예 남성이라는 역할에의 강박 없이, 나에겐 아직도 버거운 술과 어색한 게임 없이, 정말의 '나'를 내비칠 수 있었던 시간. 함께 촛불대화를 하던 한 친구는 나중에 나에게 고백했다. "난 네가 이런 좋은 목소리를 가졌는지 몰랐어.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못 들어봤거든."

2. 촛불대화의 경험은 이후에도 반 활동에서 계속 회자되었다. 나처럼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 게임이나 술자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친구를 찾은 사람들이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또 기뻐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냈다. 반 친구들과 끊임없이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관계 맺기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새터 기획회의에서는 왜 게임의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스킨십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인지를 토론하였다. 또 촛불대화의 어떤 점이 좋았으며 왜 이런 시간이 중요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다음 해에도 촛불대화는 이어졌고, 거기에 더해서 '보드게임방'을 운영해본다거나, 혹은 OT때 '술 없는 뒤풀이'를 하루 기획해서 포크댄스를 춰본다거나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방식으로는 아무도 친구가 될 수 없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아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대화, 어떤 이를 배제하지 않는 관계 맺기를 만들어 갈 때, 정말 우리의 만남은 당신의 밤보다 아름다울 것이라.

글 - 파니

이런걸해보았어요 – 선배되기학교

지난 2008년 12월 26일,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선배되기학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46대 정치외교학과 "청연" 학생회가 정외과 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기존 공동체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구성원들과 새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책 중 하나는 기존 구성원들이 공동체 내부적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이번 행사는 신입생으로서 과 생활을 한 학우들과 여러 선배들이 모여 과 내의 문화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정외과에서 학번을 우선시하여 정하던 호칭을, 학번과 나이를 고려하여 상호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개강하는 날까지 공적인 자리에서는 선, 후배 간에 밀을 놓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과 더불어 뒤늦게 과 생활에 참여한 새내기들이 이미 친해진 구성원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술을 강권하던 문화를 지양하기 위해 술을 강권하지 않는 것을 결의문에 포함시켰고, 술이 아닌 대안적인 문화를 고민해 보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편해 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 '좋은 선배'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이 행사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준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비록 첫 시도라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의 첫 걸음이 이상적인 공동체로 정외과를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글 - 정환

작년 여름 제가 속한 대학YMCA[1]에서는 여주에서 문경으로 남한강을 따라 걷는 생명평화 도보순례를 떠났습니다. MB 대운하를 반대하는 거창한 취지에서 운하 건설예정지를 따라 걸어 내려갔던 저희의 여행은 그리 길지 않은 4박5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자동차를 타고 갔다면 볼 수 없었던 습지의 조그마한 생명들을 만나고, 아무도 밟지 않은 듯한 길들을 걸으며 온전히 땅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여느 다른 국토대장정을 흉내 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유된 가치도 없이 무작정 먼 길을 앞만 보고 걸어가는 '극기'를 위한 지친 걸음걸이가 아니라, 먼 길을 걷더라도 차분한 발걸음으로 내가 발 딛고 걸어가는 길과 그 길 위에 놓여 있는 생명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 도시에 익숙한 우리의 편리하고도 소비중심적인 삶-그것은 곧 개발과 성장을 부추기고 대운하를 정당화하게 되는 삶-을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도보순례 이름 앞에도 생명평화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사실 이보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은 없습니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과 생명평화, 관념적으로는 쉽게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여행기간에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세상이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로 인해 가려진 진짜 세상을, 수많은 생명이 가득 차 있으면서 공존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도시의 죽은 것들로 둘러싸여 무감각해진 나의 삶,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울까. 이렇듯 더운 여름의 여행이 우리는 '끼리끼리 그저 소비하고 웃고 즐기다'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서울에서 매일같이 질리도록 해오던 것이었으니 위에서 고민한 지점들을 여행 내내 같이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에서의 씀씀이도 최대한 소박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자 했습니다. 소비를 덜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얘기하고 노래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비하는 방식은 그 모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함께 모여 무엇을 하게 되는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도시에서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소비가 농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공장식 영농속에 가두어진 소, 닭, 돼지들을 더 아프게 했고, 더 많은 화석연료의 소비로 지구를 아프게 하고 세제 속의 계면활성제로 강을 아프게 했으며, 그리고 그러한 수많은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이번 여행에서의 소비는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학Y에서는 그동안 세미나나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생태적으로 공존 가능한 먹거리와 소비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그것을 개개인의 삶으로 다시 가져갔을 때 습관화된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서는 그런 소비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를 통해서 강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평화의 가치로 강을 따라 걷는 공동체적인 여행을 하게 됐을 때, 한번 다르게 해보자 라는 뚜렷한 목적의식도 생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실천을 격려하며 부추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소비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른바 대학 YMCA 생태모꼬지 매뉴얼이라는 것도 만들었지요.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보다 해당 지역의 재래시장을 이용하자'
'지역 생협[2] 등을 통해 유기농 먹거리를 소비하자'
'식사는 최대한 소박하게 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하자'
'육류 섭취를 최소화 하고 유정란 등 생명 먹거리를 소비하자'
'인스턴트 등 공장과자를 지양하자'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자'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치약, 샴푸, 세제를 사용하자'

-2008, 대학 YMCA 전국연맹 생태모꼬지 매뉴얼에서 발췌

지난 여름, 남한강 길을 따라 걸었던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





❶ 대학 YMCA는 기독성을 바탕으로 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학생 운동조직이다. 종교인-비종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독성을 실현하자' 라는 근본적인 운동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대학YMCA는 전국 여러 대학에 조직되어 있고, 각각의 대학 YMCA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학내에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현재대 YMCA는 먹거리와 소비를 둘러싼 다양한 생태적인 문제를 학내에 제기해 왔으며 (불편한 식사 1, 2) 영화제, 지역농과 연대하는 과일끼페, 生生 생태적 생협 만들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8년 7월 22일~26일 생명평화 도보순례는 대학YMCA 전국연맹의 활동으로 진행되어 여러 지역의 대학 YMCA가 함께 참여하였다.

❷ 한국의 지역 생협은 단순히 공동구매로 물건값을 저렴하게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성격을 넘어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농민과 그것을 안정적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도시 소비자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정한 소비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서울에서 미리 장을 다 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여주 충주 괴산 문경 등지의 지역시장을 찾아 장을 보았습니다. 육류 섭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소박하게 밥을 먹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주로 시장에서 구매한 각종 밑반찬(콩자반, 멸치볶음, 깻잎, 김치, 조리김, 상추 쌈)과 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에 각자 그릇과 수저 등을 준비해온 것은 물론이구요. 한살림 생협[redacted]을 통해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은 친환경 치약, 샴푸, 세제 등도 구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밥, 반찬은 잘 보관하여 다음 끼니에 섞어서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잘 보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들은 너무 금욕적이기만 해서 자칫 공동체 모임의 재미를 반감시킬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리 약속만 잘 하면 각자 그릇 등을 준비해 올 수 있으며 친환경 세제도 구해서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지역시장에서 물품을 사는 것은 여행의 재미를 훨씬 북돋워 줍니다.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여유로운 북적임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간의 적당히 오고가는 흥정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 운 좋으면 그 지방의 특색 있는 농산물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래시장에서는 오히려 할인마트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싱싱한 채소들을 구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육식을 최소화 하고 인스턴트와 같은 공장과자를 지양하는 것은 청빙 골치 아픈 일처럼 보이지만 여행이나 MT가 꼭 무언가를 먹고 떠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며 공동의 멤버십을 키워나가는 것에 있다면, 소박하게 먹더라도 맛있게 기분 좋게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먹거리는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먹는 이도 위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지에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고, 또한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거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불편은 금욕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박적인 불편이 아니라 서로 더 같이 있고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즐거운 불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도보순례는 아침에 밥을 간단히 해먹고 아침 명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오전에 갈개천천히 걷다가 강기슭 마른 잔디나 다리 밑, 마을 폐교 등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무렵까지 또 걷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텐트를 치고 저녁을 해먹고 하루 생활나눔을 하는 식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술 마실 일은 없었지만 아침 명상을 하면서 좋은 글귀, 시구를 들으며 차분히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저녁밥을 먹고서는 도란도란 둘러 앉아 그 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 나누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서로 교분을 나누고 공동의 멤버십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함께 걸으며



서로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함께 노래 부르며 걷기, 알싸한 휴식 시간에 갖는 한 바탕 수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과 숨을 끝까지 들여 마셔도 좋을 맑은 공기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잊지 못할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덧붙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 집에 찾아가 어떻게 사시는지 여쭤보고, 평생을 그 곳에서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을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구수한 그분들의 사투리처럼 정겨우면서도 이제는 사람이 떠나 버려진 폐가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마을을 지켜갈 젊은이 하나 눈에 띄지 않는 그 곳처럼 쓸쓸함이 묻어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도보순례가 막연히 '대운하를 반대한다' 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행에서의 가슴 뜨거운 만남과 일상적인 실천은 우리에게 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실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길 위에서 생동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만나고 도시의 거대한 그림자에 막혀 볼 수 없었던 산과 강을 멀리멀리 바라보고 도시의 거대한 자본과 소비의 힘에 짓눌리며 잊혀진 농촌마을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여행의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도시에서 길들여진 소비적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면서도 자연을 병들게 하고 농촌을 가난하게 하며 착취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행에서 지키고자 했던 소비원칙이 안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도시에 돌아가서도 꼭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계나루를 향한 길 위에서 만난 한 농민 할아버지는 힘들게 유기 농사를 해오면서 강을 깨끗이 하고 제초제와 해충약을 쓰지 않은 건강한 쌀을 생산해오셨지만 도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충주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충주댐이 생긴 이후로 강물이 너무 차가워져서 사계절 기후가 변화했고 그래서 예전처럼 강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더군다나 낚시꾼들이 버려놓은 낚싯바늘을 삼켜 소가 죽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유기 농사를 하시면서 강을 깨끗하게 했듯이 충주의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도 낚싯바늘과 생활하수로 오염된 강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여러 번 강 주변을 청소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촌의 사람들이 깨끗이 지켜낸 남한강은 바로 서울 도시민들이 먹는 식수가 되며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되어 바다로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삶은 누구의 생명도 아무 의미 없이 파괴하지 않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관계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원칙을 세워 실천하고자 했던 소박한 소비, 친환경적인 소비였지만 생명평화 도보순례를 통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즐거운 불편의 실천적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하며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지겹도록 답답하고 탁한 공기와 그 거대한 그림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한강변 습지를 맨발로 걸을 때 다리를 통해 올라오던 따뜻한 온기와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 너머로 아른거리는 푸르른 강이 벌써부터 그리워졌습니다.

글 · 고구마



"아카라카 반대!" 새삼에나, 축제의 꽃이자 젊음의 열정과 희망의 장인 아카라카에 반대한다니 이 무슨 엄청난 소리일까요? 작년에 5월 아카라카가 한창일 때에 본관 앞 삼거리에서 반짝이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머리에 꽃도 꽂으며 신나게 놀던 우리가 외치던 소리였답니다. 나무수레를 하늘하늘한 핑크빛 천과 꽃으로 꾸미고 수레 안에 있던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에 흥겹게 몸을 흔들며 학교를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신기하게 바라보던 파란 옷의 눈빛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때, 왜 우리는 연세의 자부심이라던 파란 티셔츠도 입지 않고, 아카라카 축제에도 가지도 않고 노래와 춤으로 또는 외침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통통 튀는 노래를 배경으로 "학교 축제 상업화 반대!" "하나 되는 연세? NO!" 등등 차별친화적인 축제문화를 폭로하는 구호를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기업의 홍보 축제와 콘서트가 되어버린 듯한 아카라카 축제에서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의미가 있었답니다. 기업홍보축제라니 비약이 너무 심하다구요? 백양로 곳곳 그리고 노천극장과 대강당 주변에 기업들의 (놀이를 가장한)판촉행사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학교축제에서 소주병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학생회관 앞을 무대삼아 춤을 추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한 이질감을 느꼈어요. 신촌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개업행사나 판촉행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또한 "하나 되는 연세, 사랑한다 연세"라는 구호에 묻혀버린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등록금은 수많은 학내 구성원중 하나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로 책정되어왔지요. 학교는 상품을 파는 기업이 아님에도, 학생들은 매년 학교(기업)가 정한 상품을 사는 소비자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사제도도 자치공간도, 그 모든 것이 학교의 일방적인 힘으로 결정되지요. 이런 갈등과 권력관계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던) 축제에서 더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혀 지고 "하나되는 연세"의 판을 깨는 그런 목소리로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예 이야기 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맞군요. 더구나 학내 노동자들은 축제에서 고려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작년 초부터 일방적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던 학내노동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지요. 그러나 학내 구성원이며 우리 학생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연결되어있는 그들의 목소리는 축제의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카라카 뒤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추가 임금도 없이!) 학내 노동자들의 땀으로 치워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지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연세를 사랑하라"는 미명하에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카라카 축제의 이면에 대고 당차게 "메롱"을 날린 것은 시원하도록 통쾌했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말이지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록달록 행진을 하며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도 더 재미있는 것을 했다는 것을 아실거예요. 후후. 우리는 아카라카 전에 모이서 군무를 준비했답니다. 예종도 히미코에서 나오는 군무를 아시나요? 그리고 복키호러피쳐 쇼의 춤은요? 자기가 추다가 스스로도 신나고 남들도 웃겨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각자가 자신의 개성대로 추는 그 춤의 재미는 훈비한 사람이 아님 모를 거예요.(제 생각으로 하이라이트는 "까~"_("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새롭게 알게 되었던 〈실버라이닝〉분들의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실버라이닝 분들은 우리들이 준비한 작은 무대에서 가슴 울리는 노래를 맘껏 불어주셨는데, 아 그 감동~. "팔레스타인 소년의 편지"라는 곡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소녀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어째 아카라카 반대를 외치는 저에게 이리 공감이 되는지.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마음은 매한가지라 그런 것일 까요? 들리지 않았던 혹은 모른척 했던 소리들이 만났기 때문일까요?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노래는 그 중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차별친화적 연세에 메롱하기~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것이 평화
가고 싶은곳을 장애인도 갈수 있게 하는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이상) 빼앗기지 않는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반복)

(Rap1)
나를 둘러싼 세상의 것을 보라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나의 판단이 옳다고만 할수는 없겠지만 낮은곳을 못본척 외면하지 말아~
그 곳에 진정한 너와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모두의 것이니까 ~
아기 까마귀, 아기 다람쥐, 한 마리의 메뚜기모두가 주인이니까~

(Rap2)
신나게 노래하자 일어나 춤을 추자 화사한 너의 얼굴 이제는 낯익구나
말뿐인 나의 행동이야 메마른 같은 강물이야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 ~
- 평화가 무엇이냐 - <실버라이닝>

우리학교의 학내 노동자, 내가 가는 농활의 농민들, 주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제 마음 속에 영화처럼 스쳐지나가는 듯한 노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축제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축제의 무대가 많이 생겨서 다양하고도 알록달록한 각자의 노래들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글 · 로그



들어가며

대동제가 열리면, 백양로 가득가득 '연대 장터'가 열립니다. 과반/동아리를 포함한 많은 자치단위들이 무엇을 어떻게 팔고, 일은 어떻게 분배할지, 번 돈은 어디에 쓸건지, 그리고 남은 밤을 어떻게 재밌게(?) 보낼지 준비하고, 하루 동안 진행합니다. 물론 새로운 기획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안주 만들고 술 팔아서 돈을 벌고 하루 밤 밤새 놀고 그렇지요. 새로운 기획이 없다고 시비거는 것, 아닙니다. 당연하게 행해지던 방식을 성찰하지 않는 것에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저희 반에서도 '연대 장터'를 열었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장터를 만들 것인지에 앞서, 대동제와 연대장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은 꼭 필요한 고민이었습니다. 술과 안주를 파는 방식으로 장터를 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반을 꾸려 나가는데 쓰거나, 일부 연대하고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이 지금껏 해오던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저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동제가 함께 즐거우려 꾸려나가는 축제라면, 그것이 왜 누군가의 불편함을 침묵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연대장터'가 대학 밖에 맞닿은 고민을 하는 어떤 곳과 연대하려는 시도라면, 그것이 왜 연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주점을 열어 얻은 이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희는 그런 의문들을 지나칠 수 없었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축제를 만들려 했습니다.

대동제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면 먼저 해야하는 고민이 '어떻게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길 것인가'여선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축제를 준비하는 모두가 즐겁기 위해,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불편하지 않고, 그 속에서 평등하고 즐거운 관계를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대 장터'이니 만큼 연대의 의미를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대동제 때에만 '연대'라는 이름을 내걸고, 아무런 고민 없이 수익의 일부를 전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대라는 것이 서로의 고민과 경험들을 이야기해나가면서 부대끼는 것이라면, 기존의 진행해오던 형식은 연대와 하등 상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대장터'를 통해 연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대동제 속에서 '연대'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참, 이 미션들 쉽지가 않아



어째서 남학생들이 요리를 하지 못하고 여학생들이 요리를 하는 것이 익숙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 거의 모든 가사 노동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머니에게 전가되는 것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그 익숙함의 차이와 고정된 성역할은 분명히 문제적이었습니다.

MISSION 1.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들자!

그런 고민에서 저희는 주점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희가 택한 방식은 낮에 과일 쥬스나 간식거리를 팔고, 어둑해지면 우리끼리 즐겁게 놀자! 였습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주요한 모토는, 누군가가 불평등하게 일을 도맡아 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주점' 에서 술을 나르거나 힘쓰는 일은 남자들이 하고, 요리하거나 호객행위 등은 여자들이 하곤 합니다. 남학생들이 힘쓰는 것이 익숙하고, 여학생들이 요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만으로 일이 나눠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남학생들은 지금껏 살면서 요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일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빨리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남학생들이 요리를 하지 못하고 여학생들이 요리를 하는 것이 익숙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 거의 모든 가사 노동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머니에게 전가되는 것과 함께 생각해봤을 때, 그 익숙함의 차이와 고정된 성역할은 분명히 문제적이었습니다.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가져가야하는 주요한 고민은 지금껏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불평등에 문제제기하고, 그 자연스러움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자연스러움을 깨기 위해 노력했지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남성의 일' 로 여겨지는지, 그것 또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마다 남성, 여성으로만 나눌 수 없는 무수한 차이가 있음에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만으로 일이 나눠지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성별이 일을 나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최대한 이야기한 후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관 뒤쪽으로 각 단위마다 몇 명씩 술을 날라야 했을 때, 저희 반은 논의를 통해 술을 나르는 일을 맡기로 한 남학생과 여학생 몇몇이 도란도란 배부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희완 다르게 다른 곳에서 술 나르러 온 학생 대부분이 남성이어서 깜짝 놀랐더랬지요.

MISSION 2. '연대' 의 의미에 날개를 달자!

저희 반에서는 반 구성원 십 수명이 매주 한, 두 번씩 노원구에 있는 공부방에 가서 자원교사로 활동하면서 그 공부방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저희는 많은 고민들이 생겨났지요. 공부방은 '빈곤' 지역의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단어만으로 규정당하는 것에 스스로 저항하며, 자신들만의 모습을 발견하며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나가는 운동입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라고, 그래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을 갖고 구조적 모순에 대항하며, 더 나아가 당당하게 자신들만의 생활양식을 만들어나가는 운동입니다. 저희 반은 그런 공부방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그 곳의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대끼며 지내면서, 많은 고민들을 나눠왔고, 그 고민들을 '연대 장터' 로 끌어오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방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학교도 거닐고, 함께 김밥을 만들고 팔아, 공부방에 그 수익금을 전달하려는 계획이었지요. 비록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의 그런 노력은 '연대 장터' 를 통해 단순히 수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연대를 할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었어요.

나가며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다시 성찰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부분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대동제에서 우리가 가져가고자 했던 고민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율적' 으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간에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일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그것이 잘못된 편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불평등한 일은 아니었는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진 않았는가 성찰해나가면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모두가 즐겁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 뿐인 '연대 장터' 가 아닌, 진정으로 삶과 삶이 부대끼는 와중에 생기는 '연대' 를 풀어내는 것이, '연대 장터' 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축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평소에 침묵했어야만 했던 목소리를 유쾌하게 드러내는 것, 일상성의 규율을 깨부수는 그런 유쾌한 전복 말이에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평소에 숨이 막히게 우리를 옭아매고 있던 그 규율들을, 축제라는 이름으로 까발려 버린다면.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대동제에서도 평소의 일상을 뒤덮고 있던 수많은 억압들을 조롱하며 한바탕 얼어버리는, 그런 신명나는 판이 벌어지겠지요?



www.mariacarfuccio.com

LocalFood

대동제 장터, 로컬푸드 공동구매로 꽃피워보자!

눈부신 5월, 대동제. 그중에서도 제일 신나는 **일일장터!** 판매할 메뉴도 직접 정해보고, 몇 번이고 연습해서 요리도 해보는 기회는 흔하지 않죠. 이렇게 즐거운 장터에서 **생태적인 실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로컬푸드 운동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 유기농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왜 운동이냐구요?

이렇게 하면 첫째로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는 것인 만큼 해외에서 한두달 걸려서 오는 수입산보다 훨씬 신선하구요, 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지요. 둘째로, **긴 유통과정에서 생겨나는 농민에 대한 착취를 줄일 수 있어요.** 대형 마트에서 농산물을 사게 되면, 중간상인이나 거대 상업자본이 많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막상 농민의 손으로는 많이 돌아가지 못하거든요ㅠ.ㅠ 셋째로 로컬푸드는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고 운반되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적어 석유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다국적 기업에 의해 침탈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지역의 토착농산물을 지켜낼 수도 있답니다. 현재 대부분의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종자나 농약은 2~3개의 다국적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들이에요. 이는 각 지역의 토지에 맞춰진 것이 아닌 획일적인 종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토지의 지력을 갉아먹고, 또 그 종자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그들의 농약을 사야만 하도록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빚을 내서 비싼 농약을 사기도 합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자라온 종자들을 생태적으로 재배함으로써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농촌공동체를 지켜내고, 또 유전자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획일적인 종자를 거부함으로써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답니다.**

로컬푸드, 하면 거창해보일수도 있지만 함께 실천하면 매우 쉬워요^^ 수많은 학생자치단위들에서 대동제 일일장터에 필요한 양파나 밀가루 같은 식재료가 있을 거예요. 각 단위의 수량을 수합해서 그 수량만큼을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와 밀가루로 **공동구매**하는거에요! 그리고 대동제 당일이나 전날 각자 신청한 만큼 가져가서 맛있게 요리하면 되겠죠? 내가 먹는 대동제 장터에서, 땅과 농민을 살리는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해봐요!

다른 것들 상상해 보기

다른 일상을 생각해도 좋고,
다른 문화를 생각해도
'유쾌~!' 할 수 있으니까



gwenda kaczor

가끔 대학생이 되고나서 수업과 아르바이트 외에 한 것이 뭐 있나 뒤돌아본다. 오티도 하루쯤 참가해 봤고, 동아리에도 한 번 몸 담에 봤고, 새내기 땐 생각도 하지 않았던 반새터에 참여도 해 봤고, 아카라카와 연고전도 한 번씩은 가봤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라고 일컫는 것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매력이 있었다. 구체적(?)이고 진부한 표현을 쓰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추억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참 무섭다. 그러한 활동들이 나를 마냥 행복하게만 해 주는 것은 아니었으며, 때론 몸이 죄어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상의 답답함에서 조금이나마 해방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농활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농민학생연대활동. 농민 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싹을 경험한 활동이기도 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활동이기도 하다. 농활에서 겪었던 일들 중에서도 가장 공감하고, 지금도 회의를 잘 느끼지 않는 경험이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자치단위와는 다른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키우려는 농활에서의 문화였다.

기존 자치활동에서 주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술과 게임, 유머(어떤 이들에게는 유머일 수 없지만..) 속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적인 사건들은 그냥 장난으로 치부되기가 십상이었다. 이성애에 바탕을 둔 남녀 간 러브샷 벌칙이라든가 웃음 유발을 위한 외모 차별적/평가적 발언들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이 사회가 열심히 심어 놓은) 젠더 이미지가 투사된 일들은 그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자연스럽게' 성별 분업화되었다. 잘만 진행되고 있는 '효율적 분업'에 딴지걸기는 오버일 뿐이고, 오버하고 난 뒤 받는 따가운 눈초리가 두려웠다. 특히 자치단위 구성원 간 친밀도 향상이 중요한 과반 오티, 새터의 경우는 이에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치단위에 이러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상시적인 공론장도 없었다.

다른 것들 상상해 보기

농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평가시간이나 교양시간을 통해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언제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는 여성주체도 있었다.

가부장적 문화가 짙게 스며들어 있는 일상은 조금은 다른 공간일 것 같았던 농활대에서도 여전했다. 그래서 꿈틀꿈틀 거리는 불편함들이 내 엷구리를 쿡쿡 찔러댔지만 나는 가만히 찔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 나의 불편함을 여성주체가 적극적으로 공론의 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곳에서 불편함들이 어색한 웃음으로 얼굴을 알리며 '내도 여기 이케[1]있으요' 하고 말할 수 있었다. 고정된 성역할에 관한 발언이라든가 (밑에서 곧 이야기 하게 될) 농활 중 월경이라든가 속옷빨래에 대한, 나조차도 서먹서먹했던 내 안의 불편함들을 여성주체의 도움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에 '지적질'을 해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농활에서는 매일 하루일과 나눔과 평가를 하는 평가시간이 있다. 좀 과격하게 지적질이라 표현하였지만 잘 흘러가는 자연스럽기 그지없는 일상들이 다른 누군가에는 억압과 폭력으로 다가온다는 것, 게다가 그에 대한 발화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토의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공적인 장이 있다는 것은 주류적인 자치활동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소통의 장이었다.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한 땀, 흙과의 정겨운 포옹으로 점철된 여름 농활에서 빨래는 필수였다(체류기간이 짧은 봄, 가을, 겨울 농활에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0박 11일치의 옷을 다 들고 가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2] 모든 농활대원들은 빨래를 했다.

작업복과 평상복을 세탁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지만 여학우들은 머리를 싸매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 바로 속옷 빨래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속옷을 빨아 말려야 했기 때문이다. 대개 회관 앞 공용 수돗가 앞에서 빨래가 이루어졌지만 여학우들의 속옷 빨래는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졌다. 빨래 너는 곳은 마을 회관 옥상 위와 비오는 날은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하우스(06년도) 안, 또는 마을 회관 안(07년도)이었다. 그곳은 공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속옷은 수건을 덧대어 보이지 않게 널거나 여학우 숙소에 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남학우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물론 모든 남학우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빨래함에 자신의 속옷을 넣어두어 빨래 당번이 당황한 경우가 몇 번 있었고, 회관 옥상이든 하우스 안이든 별 거리낌 없이 널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 졌고 그 시간을 통해 평소에 느껴왔던 불편함을 좀 더 또렷하게 알게 되었다. 긴 토의 끝에 속옷은 각 개인이 세탁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공개적인 곳에 널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 속옷을 너는 것이 나에게도 낯선 경험이었던지라 그 후 옥상에 올라가 너는 그 순간까지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뜽뜽한 햇볕과 살랑거리는 바람에 수건 없이 속옷을 너는 것에 익숙해져 푸뜻거림 없이도 널 수 있게 되었다.

신입생 시절, 동아리의 여름 합숙에서는 상상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합숙 중 물놀이 후에 옷들을 행궈서 빨래줄로 갔을 때 당당하게 햇볕을 받고 있는 남자 속옷과는 달리 여자 속옷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무도 속옷을 널지 않았길래 나도 널지 않아야 하나 고민하며 친한 여선배에게 물었더니 수건 밑에 널었다는 답을 들었다.

남자는 속옷을 공개적인 곳에서 빨고 널어도, 윗옷을 벗고 등목을 해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사내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못했다. 여자가 함부로 속옷을 남에게 내보이거나 몸을 씻는 것은 매우 '조신하지 못하고 조심성 없는' 행동이었다. 속옷 자유롭게 널기 외에도 내가 그 발랄한 여름 햇살 아래서 꿈꾸는 등목은 말 그대로 그저 꿈꾸는 것이나 가능한 일이었다. 여성의 가슴은 거의 성적 대상화되어 있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때가 다반사고,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는 어머니로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할 때 정도가 아닐까 싶다. 물론 '어머니'로서의 몸만을 긍정하는 것 역시 여성의 몸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자식에게 모성이란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규정하고 타자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속옷 역시 그러했다. 그것은 그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속에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항상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어떠한 상징물로서 바라보는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왜 나는 내 몸을, 내 속옷을 끊임없이 숨기고 또 때로는 '보여 지게' 하는 것일까?

내 몸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인 월경. 나의 첫 월경 경험은 긍정적 이미지로 남아있다. 그것의 시작을 주변의 어른들께 알렸을 때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다고 축하를 받았던

1) '이렇게'의 방언
2) 하지만 10박 11일치의 속옷을 모두 챙겨 온 학우도 있었다.

다른 것들 상상해 보기

기억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긍정의 경험은 뒤이어지는 부정의 경험으로 점차 엷어지게 되었다. 어디 나가서 월경을 한다는 소리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소리였으며, 월경을 하는 동안에는 혹시나 옷에 묻지 않았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했다. 생리대를 교체하기 위해 화장실에 갈 때는 늘 작은 파우치 안에 숨겨서 가거나 그것이 들어 있는 가방 통째로 들고 가기도 하였다.

농활 초반에는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여전히 월경은 쉬쉬하는 대상이었고, 생리대는 주머니 속에 꼭꼭 숨겨 다녔다. 월경에 대한 부끄러움이 체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월경 때문에 무엇을 하기가 힘들다 하면 '효율성' 없는 인간이 될까봐, 별 도움 안 되는 인간이 될까봐 두려웠던 까닭도 있었다. 그것은 농활을 힘들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여성의 월경주기는 기계처럼 정확히 정해진 날짜, 정확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며 여성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우의 월경 기간은 농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사실상 모든 여학우의 월경 기간을 고려하여 자치활동의 시기를 정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르지만 그렇다고 여학우의 월경이 공동체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엠티 참여 여부를 놓고 월경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새터 공연이라도 갈라치면 시작되는 월경으로 불편했던 적도 있었다. 농활 기간과 월경 기간이 겹칠 때엔 농활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며칠씩 고민하기도 하고, 농활 중 월경을 시작하여 당황한 적도 있었다. 월경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무리하게 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설사 몸 상태가 양호하여 작업을 나간다 해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작업장 주변에 생리대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인 화장실이 없을 때나 비가 와서 우비를 입어도 옷이 젖을 때다.

이처럼 여러 활동 중의 월경은 여러 가지로 여학우에게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역시 농활대 내에서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면서 점차 받아들여 질 수 있게 되었다.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도 월경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농활에서의 그 자리가 내 경험을 나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용기의 씨앗을 준 계기였다.

경험의 공유 뒤 농활 공동체에서는 생리대를 공동 구입하기로 했고, 월경 중인 학우가 그것을 다른 대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이야기 나눔 시간도 가졌다. 혹 몸 상태가 좋지 않은대도 무리하게 작업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샤워를 할 때에도 배려 받을 수 있게[3]하기 위함이었다.

지금껏 남성 위주의 경험에 의해 구조화된 공동체 생활에 여성이 참여하는 데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농활이든 학교생활이든 모든 활동에 있어서 몸의 차이가 참여의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농활에 함께 참여하는 농활 대원으로서든, 판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으로서든, 같은 관심사에 열정을 쏟고 있는 동아리의 구성원으로서든,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에야 자치단위 내에서의 수평적인 관계맺음과 연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만한 지겹디 지겨운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지겹고 지겨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 또 그 지겹고 지겨운 이야기를 쓴 것은, 발로 뛸 자신이 없어 어정쩡하게 도피만 하면서도 그 지겨운 이야기를 쓸 것에 용기를 낸 것은, 글 속 이야기의 지겨움과는 달리 현실에서 그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도 생소하다는 것 때문이다. 매번 하는, 귀에 못이 박힌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사실 발화 자체도 쉽지 않다. (농활에서의 사례를 들자면) 작업을 받을 때에 '여자애들 말고 남자들 보내줘' 라는 농민 분에게 내 안의 박탈감과 분함을 말하지 못하는 것, 과사리 작업 중 '한 여자가 이걸 어떻게 다 해?' 라는 한 여학우의 말에 스스로가 가둬지는 듯한 느낌을 말하지 못하는 것 등이 그랬다. 일상 속에서도, 농활 중에도 '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내가 이상한건가?' 라는 고민을 수없이 해야 했고, '이 말 꺼내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마음 졸였다. 나와 같은 이가 있다면 그것이 그대만 특별히 예민하고 요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요런 내용의 글이 멀떠름한 이들에게는 한번쯤 다른 입장에 서서 불편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 사람의 예민함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평소에 생활하며 느끼던 불편함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해나가는 것. 누구도 불편하지 않도록, 평등하게 관계맺음하기를 노력하는 것. 농활에서 물꼬를 튼 그 이야기들, 조금 더 평등한 관계맺음을 꿈꾸는 그 노력들이 앞으로도 실천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불편함은 공유되어서 밖으로 꺼낸 뒤 잘근잘근 씹어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글 · 미지

3) 인원이 많은 여름 농활대의 경우 한정된 시간에 샤워를 마치기 위해 두 세 사람씩 샤워를 했다. 월경 중인 학우가 이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으니 혼자 샤워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작업 후 샤워를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대안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 환경현장활동!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현장활동을 떠납니다. 농촌지역에서 진행하는 농민학생연대활동(이하 농활)은 다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또 다른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현장활동(이하 환활)이지요.

환활은 주목되고 있는 대규모 환경 '파괴'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농활과 구분됩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해 온 신자유주의에 맞서 계속적으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반딧불이의 고장으로 유명한 청정지역 무주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 맞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집회를 열고 골프장 개발 사안에 대한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지역연대활동들 말고도 환활에서는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인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활을 진행하는 첫 날, 환활대원 모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사용하던 '이름' 대신 생태별칭을 짓게 됩니다. 이 생태별칭은 성별, 나이, 학번 등을 떠나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환활 기간에 적용해보는 방법으로 이용된답니다. 또한 같은 고민의 일환으로 '오빠'나 '언니' 같은 호칭 또한 사용하지 않아요.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또한 성별에 따른 분업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요. 그런 별칭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면서 환활대원들 스스로도 자신을 성별에 얽매지 않고 평등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환활에서는 생태별칭을 짓는 것 이외에도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동체 속에서 여성주의를 일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각 단위별 여성주체를 세우고 반성폭력 내부규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학우들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을 하지 말자'라든지 '생리하는 여학우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등의 내용이 내부규약으로 정해진답니다. 내부규약은 각 단위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지고 자신들이 정한 규약이기에 모든 환활대원들은 그 규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또한 환활 기간 전에 여성주체들이 먼저 환활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환활대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특히 주민들과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나이권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업을 선행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없었을 때에는 마을 주민들한테 환활대원들은 그저 '농사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았어요. 여학생들에게 '아가씨'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구요. 하지만 몇 년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처음보다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환활대원들을 단순히 일을 도와주러 오는 '학생'들이 아닌 그들이 처한 사안에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동지'로서 환활대원들을 대해주신답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로 매일 밤 하루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시간에는 하루 일과/활동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별분업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폭력 내부규약은 잘 지켰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관계맺음과 더 나아가 평등한 환활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환활기간에 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풀어내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이 노력들이 환활기간에만 언급되는 지점이라면 그 의미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들로 환활에서 풀어냈던 여성주의적 이야기들과 고민들, 또한 그 밖에 다른 지점들까지도 함께 풀어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활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 환활에서 만나요 〉_〈

글 · 몽개

네가 연고전이냐? 우린 연고전스틴 급브레이크다!

#1. 똑같은 것들 사이에서 다른 것 상상하기

2월과 3월의 신촌바닥은 어딜 가나 판에 박힌 듯하다. 긴장감에 쫄깃해진 새내기들과 이들을 어찌하면 즐겁게 해줄까 고심하는 선배들. 그리고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응원, 응원, 응원들. 한국 사회에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려는 것인지, 우렁찬 함성이 퍼지고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들 한다. 응원을 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나같은 사람은 짜지기 마련이다. 어디 지금 같은 새내기맞이 철 뿐일까. 따지고 보면 대동제, 아카라카 같은 굵직한 행사들의 대부분이 그렇고, 1년 달력 행사의 최고봉으로 꼽는 연고전 또한 그렇다.

#2. 연고전 너 말이야 너!

그런데 이 꽃 중의 꽃, 연고전이라는 축제는 괜찮은 걸까? 연고전 하루 동안 백양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총 25t에 달한다. 5t 트럭 다섯 대에 꽉꽉 눌러 담을 만한 쓰레기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많은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로 수거되고, 결국 어딘가에 매립되어 적게는 수 십년에서 많게는 몇 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것이다. 어디 그 뿐일까. 그 많은 쓰레기를 치우는 건 누구의 손이겠는가. 즐겁게 축제를 즐긴 연대생, 혹은 고대생이 그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은 듣도 보도 못했다. 쓰레기는 연고전이 끝난 아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한바탕 전쟁을 통해 말끔히 치워진다. 뿐만 아니라,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응원문화는 목소리크고 당당한 '영웅'을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때론 은근히, 때론 대놓고 배제한다.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든 그렇지 않겠냐만은, 연고전도 각종 권력과 문제점들이 똘똘 뭉쳐있다. 그러니 단순히 '즐긴다'고 하기엔, 나에게 이 축제는 꽤나 잔인한 모습들을 품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남성성이 여성성을 타자화 시키면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다.

#3. 붸붸붸붸뷁뷁뷁 뷁뷁연고전 헤이!

연고전이 불편했던 나는 혼자 짜지는 대신 친구들을 모았다. 나도 이 축제를 즐기고 싶었다. 그것도 되도록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즐기고 싶었다. '연고전스틴 급브레이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사족을 달면, 작년 여름 최고의 댄스가수 '전스틴 진버레이크'에서 따왔다). 기존의 연고전에 급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당찬 포부로 시작된 이 축제는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었다. 총 2주에 걸쳐 진행된 '연고전스틴 급브레이크' 행사는 중도 앞 문화제, 백양로를 급습한 쓰레기 캠페인, 사진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한 '간담이 철렁회', 학술제 등 다양한 알짜배기 세부 행사들로 채워졌다. 학술제… 간담회… 어쩐지 머리가 아파올 것 같지만, 우리의 모토는 하나였다. '우리가 더 재밌다.' 연고전이 아니더라도 즐거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헤맸다.

#4. 우왕 신난다! 힘이 난다!

그렇게 함께 모여 보낸 축제는 내 삶에 있어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다. 다른 누구의 시선도, 억압도 없이 온전히 내손으로 만든 축제의 즐거움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획일적이고, 그래서 때로는 잔인한 대학문화에게 한 번 의문을 품어 보자. 그리고 좀 '다른' 것들을 꿈꿔보자. 의외로 재밌을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될지도 모른다. ^^

글 · 날휘



9월 4일 중도 앞 민주광장 사방에 자보를 붙인 대형 쓰레기통 구조물이 보입니다. 구조물 앞쪽으로는 생태주의적 감수성 및 정보 전달을 위한 yes, no 다섯걸음가기 게임이 준비되어 있고 구조물 좌측에는 보물찾기 코너가 있습니다. 보물찾기는 재활용되는 물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게임으로 예쁜 뱃지가 상품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터에서는 연고급 밝팀이 모두 모여 여러 연고전 패러디송을 부르고 율동을 했습니다.



9월 6일 백양로는 흥분과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훈을 넘어선 화끈 백양로를 급습하기로 했습니다. 양손엔 고무장갑을, 한 손엔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우리는 곳곳에서 열리는 술판에 짜잔~ 등장합니다. 버리지마 쏭과 함께 연고전에 발생하는 쓰레기와 그것을 치우는 비정규 노동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쓰레기 봉지를 배부합니다. 앗 저기 총장님이 보입니다. 총장도 우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총장 일행을 잠시 세워놓고 버리지마 쏭과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학생자치활동은 보통 연례행사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새내기를 맞는 2월, 아카라카 · 대동제를 준비하는 5월과 같이 대개 과 · 반, 동아리에서 대대로 해온 행사를 그대로 준비하기에 바쁘기 때문일 거예요. 이러한 행사들에 대해 일일이 의미를 다시 새기고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을 고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려오던 문화가 공고히 존재할뿐더러, 이런 저런 행사를 겪다 보면 일에 치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앞서 소개한 대안적인 학생자치활동들은 매년 무비판적으로 반복되는 '그들만의' 행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동체의 고민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유쾌하게 풀어낸 매우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더 많은 대안적인 자치활동을 만들어가는 힘이 소록소록 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에서 이야기된 보석과도 같은 대안적인 활동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기획하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활동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해진 시기에 하는 정해진 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고민을 우리끼리 풀어내는 장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장도 분명히 '자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또한 그것을 일상을 뒤집어보는 유쾌한 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해 총여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ㅁ^

학교달력에는 없는, 우리만의 자치활동!



Kondoh Akino

여성제

여성제는 총여학생회가 주관하는 문화제로, 올해로 11회를 맞는답니다. 여성/여학생들이 평소에 드러낼 수 없었던 경험을 풀어내고,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이야기될 수 없는 '정치적인 것'임을 밝혀내는 유쾌한 행사이지요. 보통 총여학생회는 홍보를 통해 여성제 기획단을 모집한답니다. 한 자리에 모인 기획단들은 모여서 여성제를 어떤 주제로 풀어나가고 싶은지 세미나를 통해 알아나가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어떤 전시물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지, 강연이나 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꾸리고 싶다면 어떤 내용으로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작년 10회 여성제의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여성주의'라는 기조로 학교에서 내가 여학생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방길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엄마와 나의 소통, 학내 비정규 미화 노동자와의 연대 등을 담아냈습니다.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에서는 작년 5월에 1인 화장실을 꿈꾸는 문화제 〈너는 어디로 가니?〉를 주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을 여/남으로 분리하고 있는 현 사회는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트랜스젠더, 장애인, 여성 등 정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모든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바로 이 '화장실 문화제'를 열었답니다. 〈너는 어디로 가니?〉는 화장실이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하는 만큼 어떤 것들을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건물들을 즐겁게 돌아다니며 화장실 칸마다 화장실 문화제를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 쪽지를 찾는 사람에게 요구르트와 화장실 휴지를 경품을 주기도 했지요. 기획단이 손수 디자인한 사각휴지를 기념품으로 나누기도 했답니다. 어때요, 즐거워 보이죠?)_(

레즈비언 문화제

레즈비언 문화제 〈나는 레즈비언입니다〉는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의 주관으로 2007년 5월에 사흘 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은 '성욕'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남성만이 성애의 주체로 인식되었죠. 따라서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레즈비언은 불가능한 존재였고, 비이성애 정체성은 비가시화되어 있었습니다. 레즈비언 문화제는 이러한 이성애중심주의의 억압을 폭로하며 레즈비언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레즈비언 문화제의 준비과정은 '졸업하기 전에 이런 자리가 생겨서 기쁘다'며 온 사람,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 사람들이 넘쳐났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라도 눈길을 빼앗길 문구를 낼까,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킬까 키득거리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라며 정성들인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죠. 성정체성에 대한 강연과 레즈비언 청소녀에 대한 영화 섭외를 하며 멋진 단체를 알게 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고자 하였습니다.

反성폭력 문화제 反성폭력 문화제는 기존 성폭력 담론의 남성중심성(성폭력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남성중심적이지요)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중심적으로 성폭력을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문화제였습니다. 2006년 〈성폭력, 소통의 힘으로 그 기억을 마주하다〉는 18대 총여학생회 주관으로 모집된 기획단이 기획하고 진행하였답니다. 문화제 첫날 민주광장에서는, 기획단들이 모아낸 내 안에 있는 성폭력피해의 경험들과 성폭력의 위협으로 움츠러들었던 기억을 상징하는 사물, 기억을 적은 종이를 장사지내주었습니다. 훠이훠이 타들어가는 종이를 던지며, 불길을 둘러싸고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에 반역하고 있음을 보여줬죠. 1박 2일로 진행된 워크샵에서는 밤새도록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경험을 이야기했답니다.

안티페스티벌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에서는 2006년에 '안티페스티벌: 대통령과 함께 춤을'에 결합했습니다. 앗, 안티페스티벌이 무엇이냐구요? 안티페스티벌은 1999년에 판에 박은 미인을 양산해내는 정형화된 미스코리아 대회에 첫 안티를 걸었답니다. 미는 센티나 부피가 아니라고! 규격에 맞춰진 그녀들을 말아 주어니를 살찌우지 말라고! 이후에도 성폭력에, 가부장적인 제도정치 풍토에 안티를 걸면서, 그 밖에도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주류중심적 문화에 안티를 걸며 계속되고 있답니다.
안티페스티벌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즐거워한답니다. 무대 위에 선 모델들이 획일적인 워킹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대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신이 편한 몸짓으로 움직여보이기도 하지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연기가 있다면 연극을 해보이기도 하고요.

달빛 시위 "여자가 밤늦게 어딜.." "여자가 밤 늦게 다니니 그런 일을 당하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성들의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킴과 동시에, 폭력에 대한 잘못된 책임 전가 속에서 여성의 일상이 얼마나 통제되어 왔는지를 알리고, 여성들이 가진 기본적 몸에 대한 권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달빛시위에서는 이러한 담론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밤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피켓으로 만들기도 하고, '밤길이 무슨 상관, 성폭력은 가해자 탓'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기도 했어요.
작년 20대 총여학생회에서도 달빛시위에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답니다. 올해 달빛시위에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3.8 세계여성의날 행사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에서 1만 5천여명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10시간노동제 쟁취, 안전한 작업환경과 성, 인종, 재산, 교육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한 투쟁을 기념한 날입니다. 작년 20대 총여학생회 〈틈을 누비다〉에서는 중도 앞에서 여성노동권에 관한 자보전을 진행하였답니다. 여성주의를 풀어내는 글이 담긴 유인물과 '가부장제 사탕'을 나눠주기도 하구요. 가부장제 사탕은 여성의 몸을, 여성의 노동을, 여성의 사고를 제약하는 가부장제를 아드작 아드작 씹어먹자는 의미에서 나누어준 거랍니다. 여성해방, 화이팅!



4.20 장애차별철폐의날 행사 4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달력을 살펴보면 '장애인의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 주최의 '장애인의날 행사'는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 처럼 진행되곤 한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사회적인 장애와 장애에 대해 만들고 있는 차별을 볼 수 없습니다. '장애차별철폐의날'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현 사회의 폭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2007년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에서는 학교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학생회관 1층에 소규모 만화전을 열었답니다. 만화는 여성주의를, 장애여성 문제를 고민하는 만화가 장차현실의 작품으로 채워졌어요. 학교는 장애에 대한 고민 없이 재활학교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수업공간,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공간 등)을 만들어두었지요. 교육부에서의 지원과 예산이 확보되고, 신축 부지가 선정된 상황에서도 중고등부까지의 교육과정을 위한 학칙 개정도 미룬 상태였구요. 이렇듯 연세재활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크게 문제가 되었던 당시, 이 행사를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상력으로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글에서 이야기한 행사들에 함께 하며 고민들을 나누어도 좋구요. 내가 일상 속에서 갖게 되는 고민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고민을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갈지 함께 고민할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행사에 억지로 맞춰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더욱 더 풍부한 '자치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너도 나도 의미를 찾으며 만들어가는 활동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배제하는 일상을 퍼렇퍼렇 올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일상을 올려보아요!

아름다운 봄 이에요

자유와 낭만의 캠퍼스를 상상했겠죠. 고등학교 때처럼 복장검사나 두발규제를 하지도 않을 거고, 이름만 자율인 강제야자도 없을 거고, 맞으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 좋아지는 줄 알았지요? '대학은 다를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때처럼 극심하게 억압적인 상황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요. 근데 우땄을까. 대학도 이 사회 안에 있는 공간인 걸요. 이 사회의 차별적인 문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는 다를 것이 없어요.

공동체 내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류'가 되지요. 공동체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게 내가 적응을 잘 못해서라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우리'라고 똘똘 뭉쳐야한다는 명목아래에, 그들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중심'과 '주변'을 나누고 주변인을 배제하는 문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세! 우리는 하나!" 외치면서 응원을 하지만, 정말 하나인가요? 목소리 크게크게 외치면 우린 다 하나인가요? 이 외침에 가려진 소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랑스러운' 연세니까 다 해결된 건가요?

대학생이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여대생'이었어요. 이 이미지를 너무 나에게 들이대면서 강요하네요. 이젠 화장도 하고, 발이 아파도 힘을 신어야 하고, 패션도 신경 쓰고 몸매도 관리해야 해요. 심지어 추리닝을 입어도 예쁘게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시선을 받고 뒷말이 들려요.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지 않으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남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자애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넌 통금도 없냐고 묻네요.

여기저기서 비아냥대는 말이 들려요. 아 호모포비아들... 난 힘들어만 가죠.

이처럼 공동체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랍니다. 의외로 주위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 혼자만 동떨어진 느낌이 들까요?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문화에서 주변인이 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기준은 이미 차별적이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소외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주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제해놓고서는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만 이런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불편했던 것들, 불편하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나의 느낌을 말하면, 자신이 속으로만 생각했던 걸 말하는 목소리에 기뻐하며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느꼈던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공고했던 '주류'의 문화를 흔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지는 않나요? 어차피 이곳에서 몇 년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요! 원하고 의지만 있다면 당신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잘 살펴보면 공동체의 문제들에 공감하며 변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 다른 문화를 만들고, 기존의 문제적인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신을 탓하지 말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상상해보세요. 변화는 가능하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차피 앞으로 살게 될 공간, 나도 여기 산다고 몸짓을 해보아요.